高麗 時代 釋讀口訣에 나타난 선어말어미의 계열관계와 통합관계*

백 두 현**

1. 서론

1.1. 연구 자료와 연구 대상

본고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구결자 중 선어말어미 기능을 하는 것을 가려,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분포를 기술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국어 문법사 연구에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의 문헌을 대상으로 한 선어말어미들에 관한 연구는 자료 확보의 용이함과 풍부함에 힘입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훈민정음 창제 이전 시기 국어에 존재하였던 선어말어미의 목록과 이들의 결합 양상에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정재영 교수님은 필자가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다. 최동주 교수님은 이 논문을 꼼꼼히 읽어 보시고 여러 가지 잘못을 바로 잡아 주셨다. 이은규 교수님이 전산 처리한 자료는 큰 도움이 되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경북대학교

대한 연구는 자료의 빈곤함과 借字表記法이 지닌 제약으로 인하여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런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고려시대의 석독구결 자료는 고려 문법에 존재하였던 선어말어미에 관한 사실을 밝히는 데 매우 유용한 것이다. 개별 구결자들은 어간, 어미, 접미사 등을 나타내는데 어간과 어미 사이에 통합하는 구결자들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선어말어미로 쓰인 것을 추출해 낼 수 있다. 선어말어미 기능을 하는 구결자의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기술하는 작업은 구결자들의 문법 기능을 밝히는 기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 고려 시대 국어문법의 체계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고에 이용하는 석독구결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은 略稱이다.

華嚴經疏 卷 35 (華疏) : 12세기 중엽 혹은 그 직후
華嚴經 卷 14 (華嚴) : 12세기말-13세기초
金光明經 卷 3 (金光) : 13세기 중엽 이후 [필체가 다른 뒷부분은 13세기 중엽 以前]
舊譯仁王經 上卷 落張 5매 (舊仁) : 13세기 중엽 이후
瑜伽師地論 卷 20 (瑜伽) : 13세기 말엽

각 문헌의 時期는 南權熙 교수가 서지학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추정한 것이다.[1] 위의 다섯 가지 문헌에는 고려시대의 문법을 연구할 수 있는 많은 문법형태들이 반영되어 있다.[2] 上記 문헌 자료에서 선어말어미

---

1) 남풍현(1996:5-6)은 '-ㅣ(ㄴ)ㅿ'의 표기 양상을 기준으로 석독구결 자료들의 시대적 순서를 추정했는데 위의 것과 약간의 시기적 차이가 있다. 남풍현 교수가 추정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釋華嚴經敎分記 : 10세기 중엽 (950-60년대)
華嚴經疏 卷 35 : 11세기말 내지 12세기초
華嚴經 卷 14 : 12세기 후반
金光明經 卷 3 : 13세기초
舊譯仁王經 上卷 落張 5매 : 13세기 중엽
瑜伽師地論 卷 20 : 13세기 후반

2) 위의 다섯 자료 중 가장 빠른 것과 늦은 것의 시대적 거리가 1세기 반 정도

기능을 하는 구결자 중 가장 널리 쓰인 것들을 가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白(숩)-'
2. '-ㅅ(시)-'
3. '-ㅁ(오)-'(ㅁ/ㅇ)
4. '-ㅕ(겨)-',
5. '-ㅌ(ᄂᆞ)-'[3]
6. '-ㅏ(누)-'[4]
7. '-ㅓ(리)-'
8. '-ㅋ(아)-'
9. '-ㅿ(거)-'
10. '-ㅁ(고)-'
11. '-ㄴ(ㅅ)-'

위의 11가지 중 1, 2, 3번의 구결자는 拙稿(1995, 1996)에서 다루어진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8개 구결자를 대상으로 그 분포-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기술하기로 한다. 하나의 구결자는 보통 여러 가지 문법형태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위의 8개 구결자 중에는 같은 字形이 조사나 어말어미 또는 접미사로 기능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용도로 쓰인 구결자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고 선어말어미로 기능하는 것만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다. 이러한 시대적 거리는 석독구결 자료 안에서도 일정한 통시적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석독구결 연구에 있어서 통시적 변화에 따른 자료 간의 차이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ㅌ(ᄂᆞ)-'에 '-오-'가 결합한 형태로 생각되는 '-ㅈ(노)-'의 용례가 석독구결 자료 전체에 몇몇 예가 나타난다. 이 글자의 용례는 매우 적고 그 분포는 졸고(1996 : 127)에서 기술되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4) '-ㅏ(누)-'의 분포와 기능은 졸고(1996 : 128-133)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 사실을 추가하여 논의한다.

1.2. 연구 방법

선어말어미로 쓰인 구결자들은 구결토 속에서 어미구조체를 형성한다. 어떤 구결자가 다른 구결자와 결합하는 구조적 양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구결자가 쓰인 구결토를 기능상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필자는 비슷한 구성을 가진 구결토들을 類別하고 형태상으로 유사한 토를 묶어서 구결자들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어말어미로 쓰이는 구결자와 그것의 前後에 통합하는 구결자들의 통합관계 및 계열적 교체[5] 관계를 잘 드러내기 위하여 구결토들을 글자별로 분석하여 '線型的'으로 배열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및 '線型的' 배열은 구결자들의 세로관계(계열관계)와 가로관계(통합관계)를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2. 본론

2.1. '-ナ(겨)-'

주체존대법 '-ニ-'나 겸양법 '-白-'의 문법 기능에 관한 인식은 학자들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나 '-ナ-'의 문법 기능에 관한 인식은 학자들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6] '-ナ-'의 문법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석

---

5) 필자는 이 글에서 '계열적 교체'라는 용어를 특정화하여 쓰기로 한다. 이 '계열적 교체'는 분포상으로 서로 바뀌어 들어 갈 수 있는 구결자들의 관계를 가리키지만, 두 개 이상의 구결자가 '계열적 교체'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서로 대립된 문법형태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분포상의 '계열적 교체'가 문법적으로 대립되는 형태임을 입증하려면 통사·의미론적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계열적 교체'는 문법적 대립을 이루는 '계열관계'로 확립된다고 본다.

6) 'ナ'가 동명사형 어미라는 견해에 대한 비판은 이승재(1996a)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吏讀의 '在'는 시상과 관련된 표기로 파악되기도 했고(남풍현 1974), 존경법과 관련된 표기로 파악되기도 했으며(서종학 1989), 사건의 完

독구결에 나타난 '-ナ-'의 분포에 대한 정밀한 기술이 선행되고 이어서 '-ナ-'가 쓰인 문장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분석이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ナ-'의 통합관계와 계열관계를 기술하여 '-ナ-'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려 후기의 음독구결과 15세기 국어에는 '-ナ-'에 대응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석독구결에서 '-ナ-'는 다양한 토를 구성하며 매우 활발하게 쓰였다. '-ナ-'의 문법 기능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만큼 이 구결자의 분포는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7] 2.1.1절에서 동사 어간에 통합한 '-ナ-'와 그 전후에 결합하는 어미들의 통합관계를 토의 형태별로 나누어 기술하고, 이어서 2.1.2절에서 서로 같거나 형태가 비슷한 어미구조체에 '-ナ-'와 교체되어 들어갈 수 있는 구결자들을 찾아 내어 이들간의 계열관계를 기술할 것이다.

2.1.1. '-ナ-'의 통합관계

가장 단순한 구성에 쓰인 '-ナ-'는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개재한 것인데 그 중 몇 예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1)-a 동사 어간에 직접 결합한 것

了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서종학 1995). 한편 박성종(1996 : 241, 251, 253)은 15세기의 이두문에 쓰인 '有'와 '在'에는 '완료'와 함께 '완료지속'의 의미기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在'에는 지속의 의미가 두드러지고 '有'에는 완료의 의미가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이승재(1996a)는 석독구결자 '-ナ-'가 주체존대의 경어법 선어말어미이며 고려시대의 주체존대법은 3등급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독창적 견해를 내어 놓았다. 남풍현(1996 : 15)은 석독구결의 'ナ'를 15세기 국어의 '-아 잇-'에 이어지는 조동사 어간으로 보았다. 'ナ'의 문법적 지위를 선어말어미로 보느냐, 조동사로 보느냐 하는 기본적인 사실에서부터 견해 차이가 크다.

7) 석독구결의 'ナ'는 어간 형태를 나타낸 'ナ-'도 있고, 문법 형태를 나타낸 '-ナ-'도 있다. 본고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상은 거의 대부분 문법 형태 '-ナ-'에 관한 것이다.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ナ-'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ナ'를 쓰기도 한다.

修行ᄉᆞᄂᆞᆞ(舊仁 14:23), 供養ᄉᆞᄂᆞᄒᆞ(화엄 14;16:09),
有ᅀᅡᄂᆞᄒᆞᄂᆡ(瑜伽 20;25:06), 謂言ᄉᆞᄂᆞᄅᆞ(舊仁 02:19)

(1)-b 형용사 어간에 직접 결합한 것

無ᄒᆞᄂᆞᄂᆡ(없겨다), 有ᄒᆞᄂᆞᄂᆡ(금광 3;03:23), 善ᄂᆞᄀᆞ(화엄 14;02:10)

(1)-c 계사어간에 직접 결합한 것

力ᄋᆡᄂᆞᄂᆡ(화엄 14;15:15), 名稱ᄋᆡᄂᆞᄂᆡ(화엄 14;15:15)

(1)-abc는 '-ᄂᆞ-'가 동사, 형용사, 계사 어간에 두루 통합함을 보여 준다. 또한 '-ᄂᆞ-' 뒤에 종결어미, 접속어미, 동명사형어미 등 다양한 어말어미가 후접됨을 알려 준다. 'ᄉᆞᄂᆞᄂᆡ'(ᄒᆞ겨다), 'ᅀᅡᄂᆞᄂᆡ'(두겨다), '無ᄒᆞᄂᆞᄂᆡ'(없겨다), 'ᄋᆡᄂᆞᄂᆡ'(이겨다)와 같은 예들은 어간에 '-ᄂᆞ-'가 직접 통합한 것인데, 이러한 '-ᄂᆞ-'는 신라 시대의 吏讀文에 나타나는 '寫在如'(華嚴經寫經), '成在之'(葛項寺石塔記)의 '在'와 직접 관련된 형태이다. (1)에 쓰인 '-ᄂᆞ-'는 선어말어미 기능을 하는 문법형태로 생각된다.[8] '-ᄂᆞ-'를 선어말어미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1.2절의 여러 예에 나타나듯 '-ᄂᆞ-'와 다른 선어말어미들이 계열적 교체를 보이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2.1.1.1. 먼저 '-ᄂᆞ-'에 후접하는 문법형태를 살펴 보기로 한다.

(2)-a

ᄋᆡ ᄂᆞ ᄀᆞ ᄋᆡ ᄂᆡ 波羅蜜義ᄋᆡᄂᆞᄀᆞᄋᆡᄂᆡ(금광 3;05:23)

---

8) '无ᄂᆞᄀᆞᄋᆡᄂᆡ'(瑜伽 20;06:13)와 '有ᄂᆞᄀᆞᄋᆡᄂᆡ'(瑜伽 20;30:04)를 비교해 보면 '有ᄂᆞ-'의 'ᄂᆞ' 즉 '有'에 직접 붙은 'ᄂᆞ'도 全訓讀表記字가 아니라 先語末語尾임을 알 수 있다. '无ᄂᆞᄀᆞᄋᆡᄂᆡ'는 '없겨ㄴ이다', '有ᄂᆞᄀᆞᄋᆡᄂᆡ'는 '잇겨ㄴ이다'로 읽을 수 있다. 한편 '有'의 懸吐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有ᄂᆞ-', '有ᄒᆞᄂᆞ-', '[有]ᅀᅡᄂᆞ-'가 그것이다. 'ᄂᆞ'를 15세기 국어의 '-아 잇-'에 대응하는 조동사로 볼 때 '有ᄒᆞᄂᆞ-'에 붙은 'ᄂᆞ'를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다. 존재동사 '有'(잇-)에 다시 존재의 보조동사 'ᄂᆞ-'가 붙는다는 것은 어색해 보인다. 또 'ᄋᆡᄂᆞᄂᆡ'(이겨다)의 'ᄂᆞ'를 조동사 어간으로 본다면 계사 뒤에 동작상을 표현하는 보조동사 'ᄂᆞ-'가 결합했다고 기술해야 하는데 이러한 결합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ㅣ ㄴ ㄱ ㅣ ㅁ　　幻化ㅣㄴㄱㅣㅁ(舊仁 14:11)
ㅣ ㄴ ㄱ ㅣ ㅿ　　不矣ㅣㄴㄱㅣㅿ(舊仁 15:04)

(2)-b
ㅅ ᄆᆞ 矣 ㄴ ㄱ ㅣ ㅣ　願求ㅅᄀᆞᆺᄆᆞ矣ㄴㄱㅣㅣ(금광 3:04:10)
ㅅ　 矣 ㄴ ㄱ ㅣ ㅣ　爲人ㅅ矣ㄴㄱㅣㅣ(금광 3:03:09)[9]

(2)-c
ㅅ ㄱ 矣 ㄴ ㅣ　　苦起ㅅㄱ矣ㄴㅣ(화소 35:02:03)
矣 ㄱ 矣 ㄴ ㅣ　　不矣ㄱ矣ㄴㅣ(화소 35:19:03)[10]
　ᄆᆞ 矣 ㄴ ㅣ　　說ᄆᆞ矣ㄴㅣ(화소 35:18:19)

(2)-a의 'ㅣㄴㄱㅣ-'의 구성은 'ㅣ(계사 '-이-')+ㄴ(선어말어미 '-겨'-)+ㄱ(동명사형어미 '-ㄴ')+ㅣ-(계사 '-이-')+ㅣ(종결어미)와 같이 분석된다. (2)-b의 '矣'는 형식명사 'ᄃᆞ'와 계사 '-이-'를 융합 표기한 것이며, 'ㅅᄆᆞ矣ㄴㄱㅣㅣ'(홀ᄃᆞ이견이다)도 (2)-a와 같이 'ㅣㄴㄱㅣㅣ'가 포함된 구성이다. 이와 같이 하나의 토에 계사 '-이-'가 두 번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15세기 문법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ㅣㄴㄱㅣㅣ'의 '-ㄱㅣ-'는 후대에 '-니-'로 발전하게 되는데, 15세기 문법에 나타나는 '-니라' 등의 '-니-'는 '-ㄱㅣ-'의 변화형이다. 고려시대 문법에서 어말어미 '-니' 또는 선어말어미 '-니-'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ㅣㄴㄱㅣㅣ'에서 보듯이 동명사형어미 '-ㄱ'과 계사 '-ㅣ-'로 분리 표기되어 있다. (2)-c 'ㅅㄱ矣ㄴㅣ'(혼디겨다)의 '矣'도 그 구성이 앞의 것과 같은 것이어서 '혼ᄃᆞ이겨다'로 재분석된다.[11]

---

9) 이 예의 'ㅅ矣ㄴㄱㅣㅣ'는 'ㅅᄆᆞ矣ㄴㄱㅣㅣ'에서 'ᄆᆞ'이 생략된 표기이다.
10) '不矣ㄱ矣ㄴㅣ'는 흥미로운 예이다. '有ㄷㄱ矣ㄴㅣ' 등과 비교해 볼 때 '不矣ㄱ矣ㄴㅣ'의 否定詞 '不矣'는 동사 어간과 같은 모습으로 활용하고 있다.
11) 'ㅅᄆᆞ矣ㄴㄱㅣㅣ'는 금광명경에만 나타나고 'ㅅㄱ矣ㄴㅣ'와 '-ᄆᆞ矣ㄴㅣ'는 화엄경소에만 나타난다. 따라서 '-矣ㄴ-'와 같은 구성은 金光明經과 華嚴經疏에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瑜伽師地論에는 'ㅅᄆᆞ矣ㅣ'(유가 20:09:18), 'ㅅᄆᆞ矣ㅿ'(유가 20:21:14)와 같은 토는 보이지만 '-ㄴ-'가 '-矣-'에 후접한 예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3)-a

ᄂᆞᄒᆞᄅᆡᄂᆞᆡ 衆生ᄉᆞᄂᆞᄒᆞᄅᆡᄂᆞᆡ(舊仁 14:11)

ᄂᆞᄒᆞ ᄂᆞᆡ 力ᄉᆞᄂᆞᄒᆞᄂᆞᆡ(화엄 14;17:03)

(3)-b

ᄂᆞᄒᆞᄂᆞᄀᆞᄅᆡᆡ 成就ᄂᆞᄆᆞᄃᆞᄂᆞᄒᆞᄂᆞᄀᆞᄅᆡᆡ(금광 3;03:10)

ᄂᆞᄒᆞᄂᆞᄀᆞᄉᆞᄆᆞ 不ᄒᆞᄂᆞᄒᆞᄂᆞᄀᆞᄉᆞᄆᆞ(금광 3;07:11)

(3)-ab의 '-ᄒᆞ-'는 동명사형어미 '-ㄹ'과 계사 '-이-'가 융합하여 생성된 것이다.[12] 생성적 관점에서 보면 (3)의 '-ᄂᆞ-'는 모두 계사 어간에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a의 'ᄂᆞᄒᆞᄅᆡᄂᆞᆡ'는 'ᄒᆞ' 뒤에 계사 'ᄅᆡ'가 표기되어 있다. '-ᄒᆞ-'에 이미 계사 '-이-'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계사 '-ᄅᆡ-'가 한번 더 표기된 것이다. 그러나 'ᄂᆞᄒᆞᄂᆞᆡ'에서는 계사의 중복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ᄒᆞ-' 뒤에서 계사 표기가 이처럼 유동적이었던 것은 '-ᄒᆞ-'가 그 형성적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동명사형어미 '-ㄹ'과 계사 '-이-'의 결합으로 형성된 '-ᄒᆞ-'가 선어말어미로 굳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위와 같은 중복 표기가 나타났을 것이다.

다음은 '-ᄒᆞ-'가 '-ᄂᆞ-'에 후접한 것이다.

(4)-a

ᄂᆞᄂᆞᄒᆞᄆᆞ 遠離ᄂᆞᄂᆞᄒᆞᄆᆞ(유가 20;28:05)[13]

ᄂᆞᄂᆞᄒᆞᄀᆞᄉᆞᄆᆞᄂᆞ 不多ᄂᆞᄂᆞᄒᆞᄀᆞᄉᆞᄆᆞᄂᆞ(금광 3;14:03)

ᄂᆞᄂᆞᄒᆞᄀᆞᄒᆡᄅᆞ 爲入ᄂᆞᄂᆞᄒᆞᄀᆞᄒᆡᄅᆞ(화엄 14;02:09)

---

12) '-ᄒᆞ-'에 동명사형어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증거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39)의 여러 예에서 보이듯이 'ᄂᆞ-'가 '-ᄒᆞ-' 앞에 통합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ᄂᆞ-'는 동사 어간 'ᄒᆞ-'와 선어말어미 '-오-'의 융합형인데 선어말어미 '-오-'는 반드시 동명사형어미 앞에 통합한다(졸고 1996). 즉 'ᄂᆞᄒᆞ-'는 'ᄒᆞ+오+ㄹ+ㅣ-'로 분석되는 바 '-오-'는 후접하는 동명사형어미 '-ㄹ'이 있기 때문에 통합한 것이다.

13) 매우 드물기는 하나 '入ᄂᆞᄒᆞᄆᆞ'(瑜伽 20;25:15)와 같은 예도 보인다.

(4)-b

ᄂᆞᄒᆞᄑᆞᄉᆞᄀᆞ	爲ᄂᆞᄒᆞᄑᆞᄉᆞᄀᆞ(화소 35;13:12)
ᄂᆞ ᄒᆞᄑᆞᄉᆞᄀᆞ	何以故ㅣᄂᆞᄒᆞᄑᆞᄉᆞᄀᆞ(화소 35;25:11)

몇 개의 예만 보였지만 이러한 예는 '不ᄂᆞᄒᆞㅣ'(화엄 14;18:14), '現ᄂᆞᄒᆞᄒᆞᄀᆞ'(화엄 14;10:05)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4)는 (3)과 반대로 '-ᄒᆞ-'가 '-ᄂᆞ-'에 後接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ᄂᆞ-'에 先接하는 '-ᄒᆞ-'와 後接하는 '-ᄒᆞ-'는 기능이 다른 문법형태일 것이다. '-ᄒᆞ-'에 後接한 '-ᄂᆞ-'는 사실상 계사 '-이-'에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ᄂᆞ-'에 후접하는 '-ᄒᆞ-'는 15세기의 '-리-'와 관련지어 볼 때 추정법의 선어말어미로 판단된다.

다음은 (4)의 '-ᄒᆞ-'와 달리 '-ᄉᆞ-'가 '-ᄂᆞ-'에 후접한 것이다.

(5)

ᄂᆞᄂᆞᄉᆞᄂᆞ	奏ᄂᆞᄂᆞᄉᆞᄂᆞ(화엄 14;16:01)
ᄂᆞᄂᆞᄉᆞᄀᆞ	作ᄂᆞᄂᆞᄉᆞᄀᆞ(화엄 14;19:14)
ᄂᆞᄂᆞᄉᆞㅣ	成就ᄂᆞᄂᆞᄉᆞㅣ(화엄 14;15:08)
ᄂᆞᄂᆞᄉᆞᄀᆞ[14]	示ᄂᆞᄫᆞᄂᆞᄂᆞᄉᆞᄀᆞ(화엄 14;09:21)

(5)의 '-ᄉᆞ-'는 그 뒤에 조사 '-ᄂᆞ', '-ᄀᆞ'이 붙은 것으로 보아 동명사형어미와 같은 기능을 한다. ᄂᆞᄂᆞᄉᆞᄀᆞ는 동명사형어미 기능을 하는 '-ᄉᆞ-'에 접속어미 '-ᄀᆞ'가 직접 통합한 것인데 'ᄂᆞᄆᆞᄆᆞᄀᆞ'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이 예들은 '-ᄉᆞ-' 앞에서 '-ᄂᆞ-'와 다른 선어말어미와의 교체관계를 보여 주지 않는다. 그러나 후술할 (21)의 예는 '-ᄉᆞᄂᆞ'[15] 앞에서 '-

14) 'ᄂᆞᄒᆞᄒᆞᄀᆞ'와 'ᄂᆞᄂᆞᄉᆞᄀᆞ' 그리고 'ᄂᆞᄒᆞᄂᆞㅣ'와 'ᄂᆞᄉᆞᄂᆞㅣ'를 비교해 보면 '-ᄒᆞ-'와 '-ᄉᆞ-'가 교체되어 쓰이고 있다. '-ᄒᆞ-'와 '-ᄉᆞ-'는 그 기원적 구성이나 기능에 있어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15) '-ᄉᆞᄂᆞ'의 '-ᄂᆞ'은 속격 형태이다. 그 이유는 '-ᄂᆞ'뒤에 항상 체언이 결합하기 때문이다. '-ᄂᆞ'이 속격이라면 그 앞의 'ᄉᆞ'는 당연히 명사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ᄉᆞ'는 동명사형어미와 같은 기능을 한다.

ㄴ-' : '-ナ-' : '-ㅿ-' '-∅-'가 계열적으로 교체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6)

ソ ナ ト ㄱ 矣 ㆍ 然ㆍソナトㄱ矣ㆍ(화엄 14;15:14)
ソ ナ ト ㅣ 大師子吼しソナトㅣ(舊仁 11:22)

(6)은 '-ナ-'에 선어말어미 '-ト-'가 후접되는 것으로 '-ナ-'의 분포상 가장 특징적인 것이다. '-ト-'는 '-ㅂ-'와 관련된 형태로 간주되어 온 것인데, '-ナ-'와 '-ㅂ-'가 통합한 *'-ナㅂ-'와 같은 구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6)과 같은 '-ナト-'가 나타난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16]

2.1.1.2. 이어서 '-ナ-' 앞에 先接하는 문법형태를 분석하여 그 통합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7)-a
ソ ㅿ ナ ㅎ セ ㅣ 爲入しソㅿナㅎセㅣ(화엄 14;02:17)
ソ ナ ㅎ セ ㅣ 成就ソナㅎセㅣ(금광 3;02:21)
(7)-b
ソ ㅿ ナ ㅂ セ 住ソㅿナㅂセ(화소 20:04)
ソ ㅿ ㅂ セ 衰歇ソㅿㅂセ(화소 35;11:13)
ソ ㅂ セ 相應ソㅂセ(유가 20;31:12)
(7)-c
ㅿ ナ ㄱ 丁 問ㅿナㄱ丁(화엄 14;02:12)

(7)은 선어말어미 '-ㅿ-'가 '-ナ-'에 선접한 것인데, '-ㅎセㅣ', '-ㄱ丁', '-ㅂセ' 앞에서 '-ㅿ-'와 계열적 교체를 보여 주는 구결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ナㅎセㅣ'와 '-ナㄱ丁' 앞의 '-ㅿ-'는 그 자신의 존재 여

16) '-ナト-'와 같은 구성이 존재함을 보면 '-ト-'와 '-ㅂ-'가 관련 형태라는 생각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부에 따른 대립만을 실현한다. '-ㅿ-'가 '-ナ-'에 先接하는 형태는 '-ㅎㅓㅣ'와 '-ㄱㄱ' 그리고 '-ㅌㅓ'에 국한되어 있다. (7)-b의 세 예에 나타난 '-ㅿナ-'의 교체 양상으로 볼 때 '-ㅿ-'와 '-ナ-'는 어말어미가 아니라 선어말어미로 판단된다.

(8)-a

ソ 白 ロ ナ ㄱ	聽聞ソ白ロナㄱ (금광 3;13:23)
ソ ロ ナ ㄱ	行ソロナㄱ (화소 35;09:10)
ロ ナ ㄱ	無ロナㄱ (화엄 14;09:05)
ナ ㄱ	得ナㄱ (舊仁 11:20)
ソ ロ ㄱ	起ソロㄱ (舊仁 15:07)

(8)-b

ソ 白 ロ ナ 尸 入 ㄱ	誦持ソ白ロナ尸入ㄱ (금광 3;09:16)
ソ 白 ナ 尸 入 ㄱ	誦持ソ白ナ尸入ㄱ (금광 3;09:08)
ソ ナ 尸 入 ㄱ	五ㅣハロノ仝ロソナ尸入ㄱ (금광 3;03:01)

(8)-a는 동사 어간과 동명사형어미 사이에 '-白ロナ-'와 같은 통합 순서를 보여 주는데, 'ソ白ロナㄱ'은 '동사어간+겸양법+'-ロ-'+'-ナ-'+동명사형어미'로 분석된다.[17] (8)-b의 첫 예도 '-ロナ-'의 구성이 나타난 것이고 둘째 예 'ソ白ナ尸入ㄱ'은 '-白-' 뒤의 '-ロ-'가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8)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ロナ-'와 같이 '-ロ-'가

17) (8)-a의 'ソ白ロナㄱ'의 구성을 'ソ白ロ'와 'ナㄱ'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다. 'ソ白ロ'의 '-ロ'는 연결어미 '-고'이며, 'ナㄱ'은 존재동사 '겨-'의 활용형으로 동작의 완료를 뜻하는 보조용언이라고 상정해 보는 것이다. 'ロナ'를 '-ロ+ナ-'(-고 겨-)로 분석하여 '-고 잇-'에 대응하는 형태로 분석하고, (9)의 'ソ ㅋ ナ 干 ㅠ' 등에 쓰인 'ㅋナ'를 '-ㅋ+ナ-'(-아 겨-)로 분석하여 '-아 잇-'에 대응하는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도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러나 (7)의 'ソㅿナㅎㅓㅣ' 등에 쓰인 'ㅿナ'에는 이러한 분석을 적용하기 어렵다. '-ㅿ-'가 어말어미로 쓰인 예는 없기 때문이다. '-ナ-'가 다른 선어말어미들과 계열적 교체를 보여 주는 2.1.2절의 많은 예들과 'ㅿナ'와 같은 구성이 나타나는 사실은 'ナ'가 선어말어미임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이다.

'-ナ-'에 선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ㅁ'를 '-ㅁ'로 표시해야 할지 '-ロ-'로 표시해야 할지 망설이게 한다. 즉 어말어미 '-고'로 볼 가능성도 있고 선어말어미 '-고-'로 볼 가능성도 있다. 'ㅁ'를 어말어미 '-ㅁ'로 보면 그 뒤의 'ナ'는 조동사 어간이 된다. (8)-a의 마지막 예 'ソロ ㄱ'을 'ソロナㄱ'과 비교해 보면 'ㅁ'는 선어말어미 '-ロ-'로 생각되고 'ソロナㄱ'의 'ナ'도 선어말어미 '-ナ-'로 생각된다.

(9)

ソ ミ ナ ヲ ㎜ 無リソミナヲ㎜(화엄 14;14:09)
ソ ミ ナ ㄱ ㅅ 成就ソミナㄱㅅ(금광 3;14:16)

(9)는 '-ミ-'가 '-ナ-'에 先接한 것인데 'ソミナヲ㎜'를 (4)-a의 'ソナヲ㎜'와 비교해 보면 'ソミナヲ㎜'의 '-ミ-'와 '-ナ-'는 모두 선어말어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ソミナヲ㎜'를 'ソミ # ナヲ㎜'와 같이 분석하여 'ミ'를 어말어미 '-아'로 보고 'ナ'는 존재의 조동사 '겨-'로 보는 방법도 가능한 것이다.[18] 만약 'ソミナヲ㎜'의 '-ミ-'와 '-ナ-'를 모두 선어말어미로 본다면 '-ミ-'는 확인법의 선어말어미이고, '-ナ-'는 서법적 형태로서 동작이나 상태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19] 이에 대한 판단은 위의 예들이 쓰인 문장과 관련된 다른 문장들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7), (8), (9)의 예에서 우리는 'ㅊナ(거겨)', 'ロナ(고겨)', 'ミナ(아겨)'와 같은 배열 순서를 확인할 수 있다. 'ㅊナ', 'ロナ', 'ミナ'는 모두 'ナ' 앞에 'ㅊ', 'ロ', 'ミ'가 통합한 것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분포의 공통

18) 이런 분석 방법은 (8)의 'ロナ(고겨)'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19) 필자는 '-ナ-'의 의미기능을 잠정적으로 '동작이나 상태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해 둔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ナ-'의 기능은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 및 완료된 상황의 지속'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이두의 '有'와 '在'의 의미 기능을 논한 박성종(1996)의 견해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석독구결에 쓰인 '-ナ-'의 기능을 정확하게 규정하려면 '-ナ-'가 쓰인 구문에 대한 통사적 분석을 거쳐야 할 것이다.

성은 'ナ' 앞의 'ム', 'ロ', 'ㅋ'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문법형태임을 의미한다. 이 예들에 쓰인 'ム'와 'ㅋ'가 선어말어미이라면 이들은 15세기의 확인법 선어말어미 '-거-'와 '-아-'에 대응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ロ'는 15세기의 어떤 문법형태와 대응되지 않는 점에 문제가 있다.(이 문제는 2.7절에서 다시 논의한다.)[20]

'-ムナ-', '-ロナ-', '-ㅋナ-'와 같은 통합 형태는 '-ムハニ-', '-ロハニ-', '-ㅋハニ-'와 비교하여 봄직한 것이다. '-ナ-' 앞에 '-ム-', '-ロ-', '-ㅋ-'가 선접하는 현상과 '-ニ-' 앞에 '-ムハ-', '-ロハ-', '-ㅋハ-'가 선접하는 현상이 어떤 공통적 성격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ハ'의 결합 유무만 다를 뿐 '-ム-', '-ロ-', '-ㅋ-'가 선접한다는 점은 서로 같다. 그러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즉 '-ヒハニ-' 및 '-ナハニ-'에서 보듯이 '-ニ-' 앞에는 '-ヒ-'와 '-ナ-'가 선접할 수 있으나 '-ナ-'앞에는 '-ヒ-'가 올 수 없는 점이 그것이다.

끝으로 사동사 또는 사동접사가 '-ナ-'에 선접한 '淸淨ス リナヰタ'(화엄 14:09:22), '開悟ス リナヤセ ト'(화소 35:20:05) '受リナヰタ'(화엄 14:09:23) 등과 같은 구성도 존재함을 지적해 둔다.

2.1.1.3. 이상에서 밝혀진 '-ナ-'의 통합관계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ナ-'에 後接하는 문법형태

'-ナ-'는 'ン-'(ヲ-)를 비롯한 동사 어간에 직접 통합하는 것이 가장 흔하고, 계사 '-リ-'와 형용사 어간에 통합하기도 한다.

① '-ナ-'에 後接하는 어말어미로는 동명사형어미 '-ㄱ'과 접속어미 '-タ', '-ㅋ'가 가장 흔하고, 종결어미로는 '-ト'와 어미구조체 '-ヤセ ト'가

20) 'ナ'에 선접한 'ム', 'ロ', 'ㅋ'를 선어말어미라고 간주하더라도 'ム', 'ロ', 'ㅋ'가 서로 계열적으로 교체되는 형태로 보는 데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ムナ-', '-ロナ-', '-ㅋナ-'에 후접하는 어미구조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완전히 동일한 어미구조체 앞에서 '-ムナ-', '-ロナ-', '-ㅋナ-'가 계열적으로 교체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있다.[21]

② '-ナ-'에 後接하는 선어말어미로는 '-ㅏ-'와 '-ㅊ-'가 대표적인 것이고, '-ㅊ-'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ㅅ-'도 '-ナ-'에 후접한다.[22]

(나) '-ナ-'에 先接하는 문법형태

③ 'ㅿ', 'ㅁ', 'ㅱ'가 '-ナ-'에 先接하는데 '-ㅿナ-', '-ㅁナ-', '-ㅱナ-'와 같은 구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에 나타난 'ㅿ', 'ㅁ', 'ㅱ'의 문법적 지위와 그 기능은 앞으로 더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2.1.2. '-ナ-'의 계열관계

우리는 앞에서 '-ナ-'의 전후에 통합하는 문법형태들을 모두 확인하였다. 이 節에서는 '-ナ-'의 자리에 대치되어 들어갈 수 있는 구결자들을 확인하여 '-ナ-'가 다른 문법형태들과 어떤 계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하나의 어미통합체 안에서 '-ナ-'가 다른 문법형태와 계열적으로 교체되는 대립형을 가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토를 대상으로 '-ナ-'가 다른 구결자들과 어떠한 교체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 보자.

(10)-a

ソ ニ ろ ㅎ セ ㅣ 居ソニろㅎセㅣ(舊仁 11:07)
白 ろ ㅎ セ ㅣ 說白ろㅎセㅣ(舊仁 03:18)
ソ ニ ㅎ セ ㅣ 行ソニㅎセㅣソロろㅅろ(舊仁 15:22)[23]
ニ ㅎ セ ㅣ 知ニㅎセㅣ(舊仁 11:24)[24]

---

21) '-ㅎセㅣ'는 '-ㅎセ-'과 '-ㅣ'로 다시 분석할 수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용례에서 하나의 형태처럼 붙어 쓰인다. cf '斷ソㅎセ人'(瑜伽 20;31:14), 각주 28)번 참조.

22) '-ㅅ-'의 경우는 '-ㅊ-'와 계열적 교체를 보여 주는 경우에 한한다.

23) 같은 구성으로 '不受ソまソニかソニㅎセㅣ'(舊仁 15:18)도 존재한다.

24) 이 예가 쓰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思議ノㅎ 可セソ 不矢ケ 度量ノㅎ 可セソ 不矢リロ 唯ハ 佛人 與セ 佛人リニ; 斯リ 事し 乃; 知ニㅎセㅣ

(10)-b

ᄉᆞᄂᆞᄒᆞᄉᆡᆨ 成就ᄉᆞᄂᆞᄒᆞᄉᆡᆨ(금광 3;02:25)[25]

(10)-c

ᄉᆞᄒᆞᄒᆞᄉᆡᆨ 不多ᄉᆞᄒᆞᄒᆞᄉᆡᆨ(금광 3;13:23)

ᄒᆞᄒᆞᄉᆡᆨ 無ᄒᆞᄒᆞᄉᆡᆨ(금광 3;14:21)[26]

(10)은 '-ㅭ(ㄹ)-', '-ᄂᆞ-', '-白(ㄹ)-', '-ᄒᆞ-'가 '-ᄒᆞᄉᆡᆨ' 앞에 통합한 예이다.[27] 위에서 보듯이 어간에 '-ㅭᄒᆞᄉᆡᆨ'(-시ㅁㅅ다)와 '-ᄂᆞᄒᆞᄉᆡᆨ'(-겨ㅁㅅ다)가 통합된 예는 존재하는데 '-ㅭ-'나 '-ᄂᆞ-'가 없는 '-ᄒᆞᄉᆡᆨ'(-ㅁㅅ다)는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ᄂᆞ-'를 주체존대법으로 본다면 '-ᄒᆞᄉᆡᆨ'앞에서의 주체존대법은 이원대립만으로 구현된다고 기술해야 할 것이다.[28] (8)-b의 '誦持ᄉᆞ白ᄂᆞ尸ㅅㄱᆞ'에서 '-白ᄂᆞ-'의 통합례를 보았는데 '-ᄂᆞ-'를 주체존대법 선어말어미로 보더라도 이런 통합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즉, '-白-'은 겸양의 기능을 가지고 '-ᄂᆞ-'는 주체존대의 기능을 가지므로 양자는 대등하게 대립하는 문법형태가 아니므로 하

(舊仁 11:23-24)

25) 예가 쓰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佛ㄱ 言ᄀᆞᆫ尸 善男子ᄋᆞ 是 五法ᄂᆞᆯ 依ᄒᆞ 菩薩摩訶薩ㄱ 尸波羅蜜ᄂᆞᆯ 成就ᄉᆞᄂᆞᄒᆞᄉᆡᆨ(金光 3;02:25) (시바라밀을 성취하느니라)

26) '-ᄒᆞᄒᆞᄉᆡᆨ'는 금광명경에서만 두 예가 나타난다. 두 예가 쓰인 전문은 다음과 같다.

善男子ᄋᆞ 若 得ᄒᆞᄒᆞᆷ 是 金光明經ᄂᆞᆯ 聽聞ᄉᆞ白ᄃᆞᄂᆞᄀᆞ 一切菩薩ㄱ 阿褥多羅三退 不多ᄉᆞᄒᆞᄒᆞᄉᆡᆨ(金光 3;13:22-23) (물러나지 않느니라)

能ᄀᆞ 生滅ᄒᆞᄂᆞᆯ 現ᄒᆞ尸ᄉᆞᆫ 無生滅ᄂᆞᆯ 向ᄉᆞᄀᆞ 諸行法ᄂᆞᆯ 說ᄒᆞ尸ᄉᆞᆫ 所去來ᄉᆞ尸 無ᄒᆞᄒᆞᄉᆡᆨ(金光 3;14:19-21) (오고 갈 바가 없느니라)

27) (10)-a에서 보듯이 '-ㅭ-'와 '-白-' 뒤에 선어말어미 '-ㄹ-'(-오-)가 통합된 예가 있었다. 그런데 '-ᄂᆞ-' 뒤에 '-ㄹ-'가 통합된 예는 없다.

28) 그런데 瑜伽師地論에 '般涅槃ᄉᆞㅭᄒᆞᄉᆞᆫ'(瑜伽 20;03:12), '斷ᄉᆞᄒᆞᄉᆡᆨᄉᆞᆫ'(瑜伽 20;31:14), '處ᄉᆞᄒᆞᄉᆡᆨᄉᆞᆫ'(瑜伽 20;10:07)가 발견된다. 'ᄉᆞㅭᄒᆞᄉᆞᆫ'와 'ᄉᆞᄒᆞᄉᆡᆨᄉᆞᆫ'에서 '-ㅭ-'와 '-Ø-'형의 계열적 교체가 나타난다. '-ᄒᆞᄉᆡᆨᄉᆞᆫ'와 '-ᄒᆞᄉᆡᆨ'는 그 의미 기능이 다른 어미이다. 유가사지론의 'ᄉᆞㅭᄒᆞᄉᆞᆫ'는 그 뒤에 '雖ㅂ'가 통합하면서 "하셨다 하더라도"와 같은 양보의 접속어미 기능을 한다.

나의 어미구조체 내에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白ナ-'뿐 아니라 '-白ニ-'라는 구성도 나타나므로[29] '-白ナ-'와 '-白ニ-'는 같은 성격을 가진 어미구조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0)-c의 예는 이러한 가정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10)-c는 선어말어미 '-ヒ-'가 '-ヤヒ|' 앞에 통합한 것이다. (10)에서 '-ヒ-', '-ニ(ろ)-', '-ナ-', '-白(ろ)-'은 서로 대치되어 들어 갈 수 있는 계열적 교체를 보여 준다. 그러나 '-ヤヒ|' 앞에 나타나는 이러한 계열적 교체를 근거로 이 4가지 구결자가 동일한 문법범주에서 서로 대립되는 문법형태라 할 수 없다. '-ヒ-'가 '-ニ-' 및 '-白-'과 대립되는 형태가 아님은 명백하고, '-ニ-'와 '-白-'간의 관계도 그러하다.

'-ヤヒ|'에 先接하는 4가지 선어말어미의 대립관계는 다음과 같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ニ-' : '-Ø-'(zero형) - 주체존대법의 대립
'-白-' : '-Ø-' - 겸양법의 대립
'-ナ-' : '-Ø-' - 서법으로서 시상(완료 또는 완료의 지속)의 대립[30]
'-ヒ-' : '-Ø-' - 서법으로서 시상(현재)의 대립

선어말어미 '-ヒ-'와 '-ナ-'가 .한 어미구조체 또는 하나의 토 안에서 공존하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ナ-'의 의미 기능이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시상적으로 과거적인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시상을 나타내는 '-ヒ-'와는 배타적이 된다. '-ヒ-'와 '-ナ-'가 하나의 어미구조체 안에 공존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ナ-'와 '-ニ-'간의 계열관계 및 통합관계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음 예들은 '-ナ-'와 '-ニ-'간의 계열적 교체를 보여 준다.

---

29) '-白ナ-'와 '-白ニ-'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1995)를 참조.
30) 서법에 의존하여 시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고영근(1981)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렇게 표현해 본 것이다.

(11)

ㅅ ㄴ ㅎ	入ㅅㄴㅎ(舊仁 03:10)
ㅅ ㅏ ㅎ	供養ㅅㅏㅎ(화엄 14;16:11)
ㅅ ㅡ ㅎ	修習ㅅㅡㅎ(유가 20;02:14)

(11)은 완전히 동일한 토에서 '-ㄴ-' : '-ㅏ-' : '-Ø-'간의 대립을 보여 주므로 삼원대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삼원대립으로 보지 않고 '-ㄴ-' : '-Ø-'의 대립 및 '-ㅏ-' : '-Ø-'간의 이원대립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2)-a

ㅅ ㄴ ㄱ ㅣ ㅠ	居ㅅㄴㄱㅣㅠ(舊仁 11:06)
ㅅ ㅏ ㄱ ㅣ ᄉ	具足ㅅㅐㅅㅏㄱㅣᄉ(화엄 14;18:20)
ㅅ ㅡ ㄱ ㅣ ᄉ	嚴好ㅅㅡㄱㅣᄉ(화엄 14;15:20)

(12)-b

ㅅ ㄴ ㅌ ㄱ ᄉ	行ㅅㅐㅅㄴㅌㄱᄉ(舊仁 02:25)
ㅅ ㅏ ㄱ ᄉ	端正美好ㅅㅏㄱᄉ(화소 35;10:15)
ㅅ ㅡ ㄱ ᄉ	成ㅅㄱᄉ(舊仁 14:10)

(12)-a의 예들도 '-ㄴ-' : '-ㅏ-' : '-Ø-'간의 계열적 교체를 보여 준다. 그러나 (12)-b는 개재하는 선어말어미 '-ㅌ-'에 차이가 있어서 교체 관계를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이들도 (11)과 같이 삼원 대립 또는 이원 대립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13)

ㅅ ㄴ ㅌ ㄹ ㄱ ㅅ ㄱ	放ㅅㄴㅌㄹㄱㅅㄱ(舊仁 02:23)
ㅅ ㅏ ㅌ ㅡ ㄱ ㅊ ᄉ	然ᄉㅅㅏㅌㄱㅊᄉ(화엄 14;15:14)
ㅅ ㅡ ㅌ ㅇ ㄱ ㅅ ㄴ	增長ㅅㅌㅇㄱㅅㄴ (유가 20;27:19)

(13)은 '-ㅌ-' 앞에서 '-ㄴ-' : '-ㅏ-'의 교체를 보인 것이나 토의 형태

와 의미 기능이 각각 서로 다른 것이어서 '-ㅭ-' : '-ナ-' : '-Ø-'간의 삼원대립을 실현한 것이라 하기 어렵다.

다음 예들은 각각 이원대립만을 보여 준다.

(14)-a

ソナ令ㄱ 取ソナ令ㄱ(舊仁 15:25)

ソ 令ㄱ 現行ソ令ㄱ(유가 20;23:14)

(14)-b

ソナ令ㅅ 食ソナ令ㅅ(화소 35;09:16)

ソ 令ㅅ 迴向ソ令ㅅ(화소 35;26:15)

(14)는 '-ナ-' : '-Ø-'간의 대립을 보여 준다. (14)와 같은 구성에서 삼원대립을 보여 주는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의 예들도 그러하다.

(15)

ソㅭ尸矢ㅣ 分別ソ彡ソㅭ尸矢ㅣ(유가 20;03:03)

ソ 尸矢ㅣ 證ソ尸矢ㅣ(유가 20;23:02)

(16)

リㅭ尸 佛リㅭ尸(舊仁 11:06)

リ 尸 工匠リ尸(화엄 14;19:13)

(17)

リナㅣ 力リナㅣ(화엄 14;15:02)

リ ㅣ 法ㅅリㅣ(유가 20;03:23)

(15), (16)은 '-ㅭ-' : '-Ø-'형의 대립만을 보여 주고, (17)은 '-ナ-' : '-Ø-'형의 대립만을 보여 준다. (16)과 (17)을 하나로 묶어 삼원대립을 가진 형태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토의 형태와 의미 기능이 서로 다른 것이므로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원대립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31]

31) '-ㅭ-'와 '-ナ-'간의 교체 관계를 다룰 때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점은 '-ㅭ-'

이어서 '-ナ-'와 '-ㅌ-'간의 교체를 살펴 보자.

(18)

ソ ナ 乎 ㎜　　出ソ彡ソナ乎㎜(화엄 14;09:21)
　ㅌ 乎 ㎜　　獲ㅌ乎㎜(화엄 14;02:13)
ソ　 乎 ㎜　　住ソ尒ソ乎㎜(유가 20;29:12)

(19)

ソ ナ 乎 尒　　增益ソナ乎尒(화엄 14;10:07)
ソ ㅌ 乎 尒　　得ソㅌ乎尒(금광 3;14:05)[32]
ソ　 乎 尒　　興集ソㅌ乎尒(화엄 14;10:14)

(20)

ソ ナ 乎 尸 入 ㄱ　爲ソナ乎尸入ㄱ(화소 35;13:12)
ソ ㅌ 乎 尸 入 ㄱ　應七ソㅌ乎尸入ㄱ(화엄 14;14:03)
ソ　 乎 尸 入 ㄱ　獲尸丁ノ仝ロソ乎尸入ㄱ(화엄 14;02:18)

(18), (19), (20)과 같이 '-ナ-'가 '-乎-'에 先接한 토는 그 예가 상당히 많지만 '-ニ-'가 '-乎-'에 先接한 *'ソニ乎㎜', *'ソニ乎尒', *'ソニ乎尸入ㄱ'과 같은 토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ニ-'가 '-乎-'에 先接한 형태는 없고[33] '-乎-' 앞에서 '-ㅌ-'와 '-ナ-'가 계열적 교체를 보여 준다. 이것은 '-乎-' 앞에서 '-ㅌ-'와 '-ナ-'가 서로 대립된 문법형태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석독구결에서 선어말어미로서의 '-ナ-'와 '-ㅌ-'가 한 어미구조체 안에서 같이 출현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구결토에서 *'-ナㅌ-' 혹은 *'-ㅌナ-'와 같은 연결체가 나타나는 일은 없다.[34] 두 문법형태가 한 어미구조체 안에서 공존할 수

와 '-ナ-'가 하나의 토 안에서 공존하는 예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본 예로는 '中ミナソナハニフユ'(金光 3;13:18) 가 유일한 것이다.

32) 'ソメ乎尒'라는 예가 한 번 나타난다. 免ㅊㅌ효ソメ乎尒(화 14;02:19)

33) 유일한 예외는 '現ㅌ勿乎尒'(화엄 14;12:15)이다. 이 예는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매우 특이한 통합이다. '-勿-'에 '-ㅌ-'가 先接한 예로도 유일한 것이고, '-乎-' 앞에 '-勿-'가 선접한 예로도 유일한 것이다.

34) 華嚴經疏에는 '住ソ太ナㅌ七'(화소 35;20:04)과 같은 예가 있다. 문맥을 살펴

없다는 것은 이들이 같은 문법범주에 속하는 형태로서 서로 대립되는 형태임을 의미한다. 그런데 '-ㅏ-' : '-ㅔ-'의 계열적 교체는 '-ㅎ-' 앞에서만 실현되므로 적어도 '-ㅎ-' 앞에서의 '-ㅏ-'와 '-ㅔ-'는 서로 대립적인 문법형태라 할 수 있다. '-ㅔ-'가 15세기의 현재시상법 '-ᄂᆞ-'에 대응하는 형태이므로 '-ㅏ-'도 '-ㅔ-'와 같이 시상적 기능을 하는 형태로 볼 수 있다.[35] 그러나 '-ㅏ-'와 '-ㅔ-'의 대립 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양자간의 대립관계를 포괄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36]

다음 (21)은 앞의 예들과는 다른 계열적 교체를 보여 준다.

(21)

ᄉᆞᄃᆞᆫᄉᆞᆸᄂᆞᆫᄃᆡ 答ᄉᆞᄃᆞᆫᄉᆞᆸᄂᆞᆫᄃᆡ(舊仁 03:03)
ᄉᆞᄂᆞᆫᄉᆞᆸᄂᆞᆫᄃᆡ 說法ᄉᆞᄂᆞᆫᄉᆞᆸᄂᆞᆫᄃᆡ(화소 35;25:16),
ᄉᆞᄯᅡᆫᄉᆞᆸᄂᆞᆫᄃᆡ 離散ᄉᆞᄯᅡᆫᄉᆞᆸᄂᆞᆫᄃᆡ(화소35;12:17)[37]
ᄉᆞ ᄉᆞᆸᄂᆞᆫᄃᆡ 最勝ᄉᆞᄉᆞᆸᄂᆞᆫᄃᆡ(화엄 14;13:24)

보니 '住ᄉᆞᄯᅡᄂᆞᆸᄂᆞᆫᄃᆡ' 뒤에는 체언이 결합하였다. 그러므로 '住ᄉᆞᄯᅡᄂᆞᆸᄂᆞᆫᄃᆡ'의 '-ᄂᆞᆫᄃᆡ'은 속격조사가 된다. 속격조사 앞에는 체언이 와야 하므로 '-ᄂᆞᆫᄃᆡ' 앞의 'ㅂ'는 名詞化素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어말어미로서의 '-ㅂ-'와 '-ㅏ-'가 한 어미구조체 안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기술은 유효한 것이다. 석독구결의 'ㅂ'가 명사화소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이며 남풍현(1996)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35) 박성종(1996 : 245-253)은 15세기초의 이두문에 나타난 시상법 선어말어미를 '-如-' : '-在-' : '-臥-' 간의 대립체계로 파악하였다. 세 형태는 [과거성]과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대립관계를 형성한다. 이 체계에서 '-在-'와 '-臥-'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므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在-'는 석독구결의 '-ㅏ-'에 대응하고 '-臥-'는 석독구결의 '-ㅔ-' 또는 '-ㅏ-'에 대응한다. '-ㅔ-'와 '-ㅏ-'가 석독구결에서 제한된 환경이지만 일정한 대립을 보여 주는 것은 15세기초의 이두문에 나타난 대립관계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여 준다. 석독구결에서 제한적이었던 '-ㅔ-'와 '-ㅏ-'의 대립이 점차 발달하여 15세기의 이두문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36) '-ㅏ-'가 고려 후기의 음독구결에서 씻은 듯이 사라지고, 15세기의 훈민정음 표기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은 '-ㅏ-'가 가진 기능적 범주가 다른 문법형태와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변화가 발생한 데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37) 이 예는 석독구결 자료 전체에서 유일한 것이다.

(21)에 예시된 토 뒤에는 체언이 후행하므로 '-ㄷ'은 속격 'ㅅ'이 되고 그 앞의 'ㅿ'는 동명사형어미가 되어야 한다. (21)은 '-ㅿㄷ' 앞에서 '-ㄴ-' : '-ㄴㅏ-' : '-ㅗㅅ-' '-Ø-'가 계열적으로 교체되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4가지 형태들이 동일한 차원에서 대립되는 문법형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38] 華嚴經疏의 'ㅅㅗㅅㄷ'이 발견됨으로써 (21)에 나타난 '-ㄴ-' : '-ㄴㅏ-' : '-ㅗㅅ-' : '-Ø-'간의 대립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더 복잡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4가지 형태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ㄴ-' : '-Ø-'가 주체존대법의 대립을, '-ㄴㅏ-' : '-Ø-'는 동작이나 상태의 시상적 대립을, '-ㅗㅅ-'는 서법으로서 확인법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ㄴ-', '-ㄴㅏ-', '-ㅐ-' 간의 교체 관계에 나타난 현상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ㄴ-'와 '-ㄴㅏ-'가 하나의 토 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다. 금광명경의 '中ㅋ ㅓ ㅅㄴㅏㄴㄱㅜㅡ'(3;13:18)가 유일하다. '-ㄴ-'와 '-ㄴㅏ-'가 하나의 토 혹은 어미구조체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예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ㄴ-'와 '-ㄴㅏ-'가 서로 대립되는 문법형태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ㄴㅏ-'와 '-ㅐ-'도 하나의 토 혹은 어미구조체 안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예가 전혀 없으므로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ㄴㅏ-'가 한편으로는 '-ㄴ-'와, 다른 한편으로는 '-ㅐ-'와 대립되는 듯한 이러한 양면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ㄴㅏ-'의 문법적 정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ㄴㅏ-'가 시현하는 이러한 양면성은 '-ㄴㅏ-'가 이전 시기에 경험한 통시적 변화의 결과일 수 있다. 또한 '-ㄴㅏ-'의 이러한 양면성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빚어, 고려 후기의 음독구결에서 '-ㄴㅏ-'가 소멸되어 버린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

38) 이들의 기능적 차이를 파악하려면 위의 예들이 쓰인 문맥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해 보아야 한다.

2.2. '-ㅌ(ㄴ)-'

석독구결에서 'ㅌ'는 몇 가지 서로 다른 문법형태를 나타내는 데 쓰였으며 그 중에는 선어말어미로 기능함이 확실한 '-ㅌ-'가 있다. 이 節에서는 선어말어미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ㅌ-'를 대상으로 하여 그 분포를 기술한다.

먼저 文末語尾 '-ᅀᅩ' 앞에 '-ㅌ-'가 결합한 예를 살펴 보자.

(22)-a

ᄉᆞᆫ	ㅌ	ᅀᅩ	具足ᄉᆞᆫㅌᅀᅩ(화엄 14;04:06)
ㄱᆞ	ㅌ	ᅀᅩ	第一ㄱᆞㅌᅀᅩ(화엄 14;06:12)

(22)-b

ᄉᆞᆫ	ㅌ	ᄎᆞ	ᅀᅩ	安隱ᄉᆞᆫㅌᄎᆞᅀᅩ(화엄 14;02:22)[39]
ᄎᆞ	ㅌ	ᄎᆞ	ᅀᅩ	離ᄎᆞㅌᄎᆞᅀᅩ(화엄 14;02:21)

(22)-c

ᄉᆞ ㄱᆞ	ㅌ	ᅀᅩ	和合ᄉᆞㄱᆞㅌᅀᅩ(화엄 14;05:05)
ㄱᆞ	ㅌ	ᅀᅩ	示ㄱᆞㅌᅀᅩ(화엄 14;04:17)

(22)-a는 동사 어간 'ᄉᆞᆫ-'와 계사 '-ㄱᆞ-'에 '-ㅌ-'가 후접하고 '-ㅌ-' 뒤에는 願望(또는 請願)을 표현하는 문말어미 '-ᅀᅩ'가 통합한 것이다. (22)-b의 예는 '-ᄎᆞ-'가 '-ㅌ-'와 '-ᅀᅩ' 사이에 개재한 것인데 이곳에 쓰인 '-ᄎᆞ-'의 기능은 확실치 않다.[40] (22)-c는 '-ㅌ-'가 사동접사 '-ㄱᆞ-' 뒤에 직접 통합한 것이다.[41]

---

39) 같은 예로서 '養ᄉᆞᄀᆞᄉᆞㅌᄎᆞᅀᅩ'(화엄 14;02:20)가 있다.

40) 'ᄎᆞ'의 讀音을 필자(1993)는 '히'로 간주했는데, 이 '히'는 유창균 박사의 上古音 연구를 援用하여 [ki]>[ɣi]>[hi]-[ɦi]와 같은 음성 변화를 고려하여 도출된 것이다. 한편 이승재(1993) 교수는 'ᄎᆞ'를 지정문자로 보았다. 필자(1993)는 '離ᄎᆞㅌᄎᆞᅀᅩ'의 'ᄎᆞ'는 동사 어간 '여희-'의 '희'를 표기한 것이고, '-ㅌᄎᆞᅀᅩ'의 '-ᄎᆞ-'는 강세적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보았다.

41) '成熟ᄉᆞㄱᆞㅌᄆᆞᆫ'(金光 3;14:18)도 '-ㅌ-'가 사동접사 '-ㄱᆞ-'에 후접한 예이다.

(23)

ㅅ ㅂ ㅣ 發ㅅㅂㅣ(금광 3;14:24)
ㅅ ㅁ ㅂ ㅣ 蓋ㅅㅁㅂㅣ(舊仁 03:21)

(23)은 '-ㅂ-' 뒤에 종결어미 '-ㅣ'가 직접 통합함을 보여 줌과 동시에 '-ㅂ-' 앞에 '-ㅁ-'가 통합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ㅁㅂ-'와 같은 통합은 '-ㅁ-'와 '-ㅂ-'가 서로 다른 문법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ㅁㅂ-'는 다음 예들에서도 나타난다.

(24)-a

ㅅ ㅁ ㅂ ㆍ 云何ㅎㅅㅁㅂㆍ(舊仁 14:20)
ㅅ ㅁ ㅂ ㅏ 開演ㅅㅁㅂㅏ(화엄 14;16:03)

(24)-b

ㅅ ㅁ ㅂ ㅓ ㅏ 化ㅅㅁㅂㅓㅏ(화엄 14;14:18)
ㅅ ㅁ ㅂ ㄴ ㅏ 大動ㅅㅁㅂㄴㅏ(舊仁 11:12)
ㅂ ㅠ ㅏ 得ㅂㅠㅏ(금광 3;14:24)
ㅅ ㅂ ㅠ ㅓ ㅏ 調ㅅ勿ㅏㅎㄱㅅㄴㅅㅂㅠㅓㅏ(화엄 14;13:04)
ㅅ ㅂ ㅓ ㅏ 住ㅅㅂㅓㅏ(화엄 14;13:24)

(24)-c

ㅅ白ㅁㅂㄴ ㅏ 散ㅅ白ㅁㅂㄴㅏ(舊仁 11:11)
ㅅ白 ㅂ ㅓ ㅏ 供養ㅅ白ㅂㅓㅏ(화엄 14;11:11)
ㅅ白 ㅂ ㅏ 供養ㅅ白ㅂㅏ(화엄 14;15:19)

(24)-d

ㅂ 勿 ㅓ ㅏ 現ㅂ勿ㅓㅏ(화엄 14;12:15)
ㅅ ㅓ ㅂ ㅓ ㅏ 思議ㅅㅓㅂㅓㅏ(화엄 14;13:14)
ㅅ ㅅ ㅓ ㅏ 免ㅈㅂㅗㅅㅅㅓㅏ(화엄 14;02:19)

(24)의 예들은 '-ㅂ-'를 중심으로 한 선어말어미들의 통합관계를 알려 준다. 'ㅅㅁㅂㅏ'와 'ㅅㅁㅂㅓㅏ'는 '-ㅓ-'의 유무에 의한 구성상의 차이를 보여 주고, 'ㅅㅁㅂㅓㅏ'와 'ㅅㅂㅓㅏ'는 '-ㅁ-'의 유무에 의한 차이를 보여 준다. (24)-c의 'ㅅ白ㅁㅂㄴㅏ'와 'ㅅ白ㅂㅓㅏ'도 역시 '-ㅁ-'의 유무

에 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24)-c의 'ᄂᆞᆷᄇᆞᆫᄃᆞᆯᄀᆞ'는 '-ㅁᆞ-'와 '-ᄒᆞ-'가 결여된 구성이다. 'ᄂᆞᆷᄇᆞᆫᄆᆞᄆᆞᆫᄉᆞᆯᄀᆞ'가 최대의 통합 구조이다. 'ᄂᆞᆷᄆᆞᄆᆞᆫᄒᆞᆫᄃᆞᆯᄀᆞ'와 'ᄂᆞᆷᄆᆞᄆᆞᆫᄉᆞᆯᄀᆞ'에서 보듯이 'ᄒᆞ'와 'ᄉᆞ'가 동일한 환경에서 교체되고 있다. 이 두 글자는 부분적으로 통용되었던 듯하다. 'ᄂᆞᆷᄆᆞᄆᆞᆫᄉᆞᆯᄀᆞ'는 동명사형어미 'ᄉᆞ'에 연결어미 '-ᄀᆞ'가 결합된 것이고, 'ᄂᆞᆷᄆᆞᄆᆞᆫᄒᆞᆫᄃᆞᆯᄀᆞ'의 'ᄒᆞ'는 동명사형어미 '-ㄹ'과 계사 '-이-'의 융합형에 연결어미 '-ᄀᆞ'가 결합한 것이다.[42]

(24)에서 우리는 '-ᄆᆞ-'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통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ᄆᆞ-'에 선행하는 어미에는 '-ᄇᆞ-'과 '-ㅁᆞ-'가 있고, '-ᄆᆞ-'에 후행하는 어미에는 '-ᄒᆞ-'과 '-ᄃᆞ(ᄉᆞ)'이 있다. '-ᄇᆞ-'과 '-ㅁᆞ-'는 선어말어미이고, '-ᄃᆞ(ᄉᆞ)'은 동명사형어미이며, '-ᄒᆞ-'는 동명사형어미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이다. 그런데 (24)-b의 'ᄂᆞᆷᄃᆞᄒᆞᆫᄀᆞ'에서 연속적으로 결합한 'ᄃᆞ'와 'ᄒᆞ'가 문제가 된다. 동명사형어미로 보이는 'ᄃᆞ' 뒤에 다시 선어말어미로 많이 쓰이는 'ᄒᆞ'가 통합한 것이어서 이것의 형태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후술 (42) 참조.

또한 우리는 (24)에서 '-ᄆᆞ-'를 중심으로 한 계열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ᄆᆞ-' 앞에 '-ㅁᆞ-'의 통합은 가능하나 '-ᄉᆞ-'나 '-ᄋᆞ-'의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이 점은 (7), (8), (9)에서 보았듯이 '-ᄂᆞ-' 앞에 '-ᄉᆞ-', '-ㅁᆞ-', '-ᄋᆞ-'의 통합이 가능했던 사실과 다르다. 즉 '-ᄉᆞᄂᆞ-', '-ㅁᆞᄂᆞ-', '-ᄋᆞᄂᆞ-'와 같은 통합체는 존재하지만 *'-ᄉᆞᄆᆞ-', *'-ᄋᆞᄆᆞ-'와 같은 통합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ᄉᆞᄆᆞ-'와 *'-ᄋᆞᄆᆞ-'가 존재하지 않음에 비하여 '-ㅁᆞᄆᆞ-'는 존재하므로 이 '-ㅁᆞ-'는 '-ᄆᆞ-' 앞에 놓이는 '-ᄉᆞ-' 및 '-ᄋᆞ-'의 형태론적 異形態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43] 그러나 '-ㅁᆞ-'가 '-ᄆᆞ-' 앞에서 '-ᄉᆞ-'나 '-ᄋᆞ-'의 이형태가 될 수 있는 아무런 조건도 찾을 수 없으므로 '-ㅁᆞᄆᆞ-'의 '-ㅁᆞ-'는 '-ᄋᆞ-'나 '-ᄉᆞ-'의 이형태로 볼 수 없다.

---

42) 'ᄂᆞᆷᄒᆞᆫᄀᆞ'나 'ᄂᆞᆷᄆᆞᄆᆞᆫᄀᆞ'와 같은 토는 나타나지만 *'ᄂᆞᆷᄆᆞᆫᄀᆞ'와 같이 어간과 연결어미 '-ᄀᆞ' 사이에 개재한 '-ᄆᆞ-'의 예는 발견되지 않는다.

43) 필자는 졸고(1995 : 92-93)에서 '-ㅁᆞ-'가 강조적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25)

ソ ヒ ヤ セ ㅣ	不多ソヒヤセㅣ(금광 3;13:23)
ソ ナ ヤ セ ㅣ	成就ソナヤセㅣ(금광 3;02:21)
ニ ヤ セ ㅣ	知ニヤセㅣ(舊仁 11:24)

(26)

ソ ヒ ハ ニ ㅣ	住ソヒハニㅣ(舊仁 03:15)
ソ ヒ ハ ニ ク	不多ソヒハニク(금광 3;14:23)

(27)-a

ソ ヒ 尸 入 ㄱ	ソヒ尸入ㄱ(화엄 14;08:16)[44]
ソ 白 ヒ 尸 入 ㄱ	信奉ソ白ヒ尸入ㄱ(화엄 14;10:10)
cf. ヒ 勿 尸 入 ㄱ	現ヒ勿尸入ㄱ(화엄 14;12:16)

(27)-b

ソ ヒ 干 尸 の ㄱ	應セソヒ干尸のㄱ(화엄 14;14:03)
ノ 干 ヒ 尸 入 ㄱ	思議ノ干ヒ尸入ㄱ(화엄 14;13:15)

(25)는 '-ヒ-'가 당위 또는 원칙의 의미를 표현하는 어미구조체 '-ヤセㅣ'에 先接한 것이고, (26)은 '-ヒ-'가 '-ハニ-'에 선접한 것이다. (27)은 '-ヒ-'가 조건 또는 가정을 의미하는 '-尸入ㄱ'에 선접한 것이다. '-尸入ㄱ'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동작을 표현하므로 여기에 선접한 '-ヒ-'의 시상을 현재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구문에 쓰인 '-ヒ-'와 그 시상적 의미는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27)-a의 cf.에 제시한 '現ヒ勿尸入ㄱ'은 구결자의 통합상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現ヒ勿尸入ㄱ'의 '-勿-'가 주체존대법의 '-시-'라고 한다면 '-ヒ-' 뒤에 '-勿-'가 통합한 유일한 예이다. 필자는 졸고(1995:81-82)에서 '現ヒ勿干ク'의 '-ヒ勿-'는 '-ヒハ勿-'에서 'ハ'가 탈락된 단계(ヒハ勿>ヒ勿)를 반영했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같은 맥락에서 고려가요의 '-

44) '離支ヒ尸入ㄱ'(화엄 14;11:23)은 '支'가 어간의 일부임을 잘 보여준다. '-尸入ㄱ'과 함께 '住ソヒ尸入し'(화엄 14;14:01)에서 보듯이 '-尸入し'과 같은 토도 발견된다.

고시-'는 '-ㅁㅅㄱ-'의 '-ㅅ-'이 탈락한 변화형이고, 15세기의 '-거시-'는 '-ᄉㅅㄱ-'의 '-ㅅ-'가 탈락된 형태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27)-b는 'ᄒᆞ'가 '-ㅌ-'의 앞과 뒤에 모두 통합함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현상은 'ᄒᆞ'에 계사 '-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45] '-ㅌ-' 앞에 통합된 'ᄒᆞ'는 동명사형어미 '-ㄹ'과 계사 '-이-'가 융합한 어휘적 기능 요소이고, '-ㅌ-' 뒤에 통합된 '-ᄒᆞ-'는 추정법 선어말어미 '-리-'로 새롭게 확립된 문법적 기능 요소로 파악된다(후술 (40),(41)의 설명 참조).

지금까지 논의된 '-ㅌ-'의 통합관계를 요약하면 '-ㅌ-'에 선접하는 선어말어미에는 '-ㅿ-'과 '-ㅁ-'가 있고, '-ㅌ-'에 후행하는 어미에는 '-ㅣ(ㄴ)-', '-ᄒᆞ-', '-ㆆ-'가 있는데 이 중 '-ㆆ-'가 가장 특이한 것이다. 계열관계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ㅌ-' 앞에서 '-ᄉᆞ-' 및 '-ㅡ-'의 통합은 불가능하지만 '-ㅁ-'는 가능하다는 점과, '-ㅎㅓㅣ' 앞에서 '-ㅌ-' : '-ㅏ-' : '-ㅡ-'가 계열적으로 교체되는 점이다.

그밖에 다음 (28)의 여러 예에서 '-ㅌ-'가 나타나고 있으나 선어말어미로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28)-a

堅固ᄒᆞᄆᆞᄐᆞᆫ(화엄 14;11:19)　　莊嚴ᄒᆞᄆᆞᄐᆞᆫ(화엄 14;16:24)
住ᄉᆞᄉᆞᄂᆞᄆᆞᄐᆞᆫ(화소 20:04)　　衰歇ᄉᆞᄉᆞᄆᆞᄐᆞᆫ(화소 11:13)

이들의 '-ㅌ-' 뒤에는 항상 체언 상당어가 오므로 '-ᄐᆞᆫ'은 속격의 '-ㅅ'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ᄐᆞᆫ' 앞에는 체언이 와야 하므로 '-ㅌᄐᆞᆫ'의 'ㅌ'는 선접하는 동사 'ᄉᆞ-'를 체언으로 바꾸는 명사화소 기능을 가져야 한다.

---

45) '-ㆆᄒᆞ-'와는 다른 것이나 15세기 국어에서 '-리시-'의 통합체로 보이는 예(혜디 몯ᄒᆞᄉᆞ오리시니 법화 5:181-2)가 나타난다. 이 '-리시-'는 '-ㄹ+이+계사+-시-'로 분석되는 것으로 추측법의 '-리-'와 주체높임법이 통합한 것이 아니다(이승희 1996 : 77).

(28)-b

含ᄉᆞᆨᄒᆞᄂᆞᆫ(舊仁 11:12)　　變ᄒᆞᆫᄃᆞᆫᄒᆞᄂᆞᆫ(舊仁 02:14)
成佛ᄉᆞᄆᆞᆫᄃᆞᆫᄒᆞᄂᆞᆫ(舊仁 15:19)　成就ᄉᆞᄆᆞᄒᆞᄆᆞᆫᄃᆞᆫᄒᆞᄂᆞᆫ(舊仁 15:16)

(28)-b의 'ᄉᆞᆨᄒᆞᄂᆞᆫ'에 쓰인 'ᄒᆞ'도 체언화 기능을 보여 준다. 'ᄉᆞᆨᄒᆞᄂᆞᆫ' 뒤에도 체언이 통합하므로 'ᄉᆞᆨᄒᆞᄂᆞᆫ'의 '-ᄂᆞᆫ'은 속격 기능을 한다. 'ᄉᆞᆨ'은 관형 기능을 하며 후접하는 'ᄒᆞ'를 꾸민다. 따라서 'ᄉᆞᆨᄒᆞᄂᆞᆫ'의 'ᄒᆞ'는 형식명사에 가까운 체언화 기능을 하는 것이 된다.

(28)-c

所ㅣᄒᆞ(유가 20;22:21)[46]　　無ㅣᄉᆞᄒᆞ(화엄 14;09:10)[47]
厭背ᄉᆞᄒᆞ(유가 20;31:13)[48]　　所ㅣᄒᆞ(유가 20;30:05)[49]

(28)-c의 'ᄒᆞ'는 어말에 통합하여 어말어미처럼 기능하는 것인데 선행 요소를 체언화시킨다. 즉 'ᄒᆞ'가 명사화소로 기능하는 것이다.

---

46) 이 예가 쓰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復 五因ㅣ 二十種相ᄋᆞᆫ[之] 攝受ᄂᆞᆨ 所ㅣᄒᆞᄂᆞᆫ 有ᄂᆞᆫᄃᆡ(다시 다섯가지 因이 스무가지 種相으로 받아들이는 바임이 있느니라.)

47) 이 예가 쓰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菩薩ㅣ 發意ᄉᆞᆸ 菩提ᄂᆞᆯ 求ᄉᆞᄆᆞᆨᄉᆞᆨ 是ㅣ 因 無ㅣᄉᆞᄀᆞᆷ 有緣 無ㅣᄉᆞᄒᆞᄆᆞᆫ 非ㅣᄋᆞᆺ [於]佛法僧ᄋᆞᆸ 淨信ᄂᆞᆯ 生ㅣᄒᆞᄉᆞᆸ 是ᄂᆞᆯ 以ᄒᆞᄉᆞᆸ 而ᄆᆞᆫ 廣大心ᄂᆞᆯ 生ㅣᄒᆞᄂᆞᆨᄀᆞㅣᄃᆡ(화엄 14;09:10-11) (보살이 뜻을 내어 보리를 구한다는 것은 이 因을 없애며 有緣을 없앰이 아니라 佛法僧에 깨끗한 믿음을 내어 이로써 廣大心을 내는 것이다.)

48) 이 예가 쓰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若 是 [如]ᄒᆞᄉᆞᆫᄃᆞᆫ 最上无學ᄋᆞᆯ 諸 聖法ᄂᆞᆯ 得ᄉᆞᄒᆞᄂᆞᆫ 者ᄃᆞᆫ 是 [如]ᄒᆞᄉᆞᆫᄃᆞᆫ 聖法相應ᄉᆞᄒᆞᄂᆞᆫ[之] 心ㅣ [於]妙五欲ᄋᆞᆸ 極 厭背ᄉᆞᄒᆞᄆᆞᆫ [爲]ᄒᆞᄂᆞᆺᄎᆞᄆᆞᆷ(瑜伽 20;31:11-13)(만약 이 같은 최상의 배울 바 없는 聖法을 얻는 자는 이 같은 聖法에 상응하는 마음이 미묘한 다섯 가지 욕심에서 극히 싫어하고 배척함이 되리라.)

49) 이 예가 쓰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二種 補特伽羅ᄋᆞᆯ 多分 顯ᄂᆞᆨ 所ㅣᄒᆞᄆᆞᆫ 有ᄂᆞᆨᄀᆞㅣᄃᆡ(瑜伽 20;30:05) (두 가지 종류의 보특가라가 많이 나타낸 바인 것이 있다.)

(28)-d

得ㅌㄱㅣㅎ(舊仁 14:15)　　證ㅅㄱㅌㄱㅣㅎ(舊仁 11:18)
德行ㄴㅅㄱㅌㄱㅣㄴㅏㅣ(舊仁 14:16)　　得ㅌㄱㅣㄴㅏㅣ(舊仁 11:19)

(28)-d의 'ㅌㄱ'에 쓰인 '-ㄱ'는 보조조사 '-도'를 나타낸 것인데 '-ㄱ' 앞의 요소는 체언 상당어이다. 그러므로 'ㅌㄱ'의 'ㅌ' 역시 명사화소로 기능한다.

2.3. '-ㅏ(누)-'

석독구결에 쓰인 '-ㅏ(누)-'의 분포와 기능에 대한 논의는 拙稿(1996: 128-132)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본고에서는 '-ㅏ-'의 前後에 통합하는 문법형태들을 두 부류로 묶어서 간단히 논하기로 한다. '-ㅏ-'의 분포는 그 뒤에 '-오-'를 나타낸 구결자(ㅇ, ㆁ, ㅅ)가 후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다음 (32)는 '-오-'가 후접하지 않고 '-ㅏ-'만 나타나는 부류이다.

(32)-a

ㅅ ㅏ ㄱ ㄱ　　思惟ㅅㅏㄱㄱ(금광 3;07:23)
ㅅ ㅏ ㄱ ㄴ　　若見汲井ㅅㅏㄱㄴ(화엄 14;05:17)
ㅅ ㅏ ㄱ ㄹ ㅁ　　不能ㄹ矣ㅅㅏㄱㄹㅁ(화소 35;08:20)

(32)-b

ㅅ ㄷ ㅏ ㄱ ㅅ　　化ㅅㄷㅏㄱㅅ(舊仁 15:11)
ㄹ ㅎ ㅏ ㄱ ㄴ　　度ㄹㅎㅏㄱㄴ(화엄 14;18:08)
ㅅ ㄷ ㅏ ㄱ ㄹ ㅇ ㅊ ㅁ　　作ㅅㅌㅓㅅㄷㅏㄱㄹㅇㅊㅁㅅㅂㅁㄱ(舊仁 02:23)

(32)-c

ㅅ ㄷ ㅁ ㅏ ㄱ ㄹ ㄱ ㄱ　　故ㅅㅅㄷㅁㅏㄱㄹㄱㄱㅅㅇ(舊仁 03:20)
ㄷ ㅁ ㅏ ㄱ ㄴ ㅗ　　說ㄷㅁㅏㄱㄴㅗ(금광 3;13:04)

(32)-a는 동사어간 'ㅅ-'와 동명사형어미 '-ㄱ' 사이에 선어말어미 '-

ㅏ-'가 개재한 것이며, (32)-b는 같은 환경에서 주체존대의 '-ㅅ-'가 '-ㅏ-'에 선접하여 '-ㅅㅏ-'의 구성을 보인 것이다. (32)-c는 '-ㅁ-'가 '-ㅅ-'와 '-ㅏ-' 사이에 끼어 들어 '-ㅅㅁㅏ-'와 배열 순서를 보여 준다. (32)에 나타난 형태 배열의 최대 구성은 'ㅅ+ㅅ+ㅁ+ㅏ+ㄱ+조사/계사'이다.

다음 (33)은 '-오-'가 통합하여 '-ㅏᅀᅩ-'('-ㅏᄂᆞᆫ-'/'-ㅏᄅᆞ-')(-누오-)로 나타나는 부류이다.

(33)-a

ᄉᆞ ㅏ ᅀᅩ ㄱ	作ᄉᆞㅏᅀᅩㄱ(화엄 14:18:10)(화소 35:16:14)

(33)-b

ᄉᆞ ㅅ ㅏ ᄅᆞ ㄱ ᄋᆞ ᄂᆞ	歎ᄉᆞㅅㅏᄅᆞㄱᄋᆞᄂᆞ(舊仁 11:14)
ᄉᆞ ㅅ ㅏ ᄂᆞ ㄱ ㅅ ᄂᆞ	轉ᄉᆞㅅㅏᄂᆞㄱㅅᄂᆞ(금광 3;06:22)
ᄉᆞ ㅁ ㅏ ᅀᅩ ㄱ ㅅ ᄂᆞ	調ᄉᆞㅁㅏᅀᅩㄱㅅᄂᆞᄒᆞᄆᆞᄒᆞᄀᆞ(화엄 14;13:04)
ᄉᆞ ㅏ ᅀᅩ ㄱ ㅅ ᄂᆞ	食ᄉᆞㅏᅀᅩㄱㅅᄂᆞ(화엄 14;20:01)

(33)-c

ᄉᆞ ㅅ ㅏ ᄅᆞ ㄱ ᄋᆞ ㄱ	除ᄉᆞㅅㅏᄅᆞㄱᄋᆞㄱ(舊仁 11:01)
ᄉᆞ ㅏ ᅀᅩ ㄱ ㅅ ㄱ	自在ᄒᆞᄉᆞㅏᅀᅩㄱㅅㄱ(화엄 14;15:07)

(33)-d

ᄒᆞ ㅢ ㅏ ᄂᆞ ㄱ ㅅ ᄂᆞ	怖畏ᄒᆞㅢㅏᄂᆞㄱㅅᄂᆞ(금광 3;06:17)

(33) 전체에 나타나는 공통적 특징은 '-ㅏᄅᆞㄱ'이 형식명사 'ᄃᆞ'(ㅅ, ᄋᆞ)를 수식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ᄅᆞ(오)-'가 후접하지 않는 '-ㅏ-'와 현저히 다른 구성상의 특징이다.

(33)-a는 동사 어간 'ᄉᆞ-'와 동명사형어미 '-ㄱ' 사이에 두 개의 선어말어미 '-ㅏᅀᅩ-'가 통합한 것이다. (33)-bc는 관형 기능의 '-ㄱ'가 형식명사 'ㅅ'(ᄃᆞ)를 수식하는 공통된 구성에서 어간 'ᄉᆞ-'와 어미 '-ㄱ' 사이에 세 개의 선어말어미 '-ㅅㅏᅀᅩ-'가[50] 통합한 것이다. (33)-d는 앞의

50) '-ㅅㅏᄂᆞ-', '-ㅁㅏᅀᅩ-', '-ㅅㅏᄅᆞ-'는 모두 동일한 형태의 다른 표기이다. '-ㅅ-'와 '-ㅁ-'는 주체존대의 '-시-'를 지시하는 것이고, '-ᄂᆞ-', '-ᅀᅩ-', '-ᄅᆞ-'는 모두 '-오-'를 가리키는 것이다. 문헌에 따라 구결자의 쓰임에 약간의

것과 같은 구성에서 사동접사 '-ㅣ-'가 '-ㅏㄴ-'에 선접된 점이 다르다. 사동접사 '-ㅣ-'는 항상 모든 선어말어미에 선행하여 어간에 가장 가깝게 결합한다.

(32)와 (33)을 비교해 보면 '-ㅏ-'가 쓰이는 환경과 '-ㅏᄋᆞ-'가 쓰이는 환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拙稿(1996:128-132)에서 필자는 '-ㅏ-'를 선어말어미 '-ᄂᆞ-'와 '-우-'('-오-'의 이형태)가 융합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본 중요한 근거는 '-ㅏᄋᆞ-'와 같이 '-ㅏ-' 뒤에 '-오-'를 나타낸 글자 '-ᄋᆞ-' 등이 별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ㅏ-'에 '-오-'가 융합되어 있다고 본다면 '-ㅏᄋᆞ-'와 같이 '-오-'가 다시 결합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ㅏ-'와 '-ㅏᄋᆞ-'의 출현 환경이 서로 구별되는 점에서도 兩者의 문법 기능은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32)-c의 '-ㄴㅁㅗㅏ-'와 (33)-bc의 '-ㄴㅏᄋ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ㄴ-'와 '-ㅏ-' 사이에 개재하는 '-ㅁ-'가 수의적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ㄴㅁㅗㅏ-'에서 나타나듯 '-ㅁ-'가 '-ㅏ-'에 선접하므로 '-ㄴㅏᄋᆞ-'의 '-ᄋᆞ-'는 '-ㅁ-'의 이형태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 (34)는 'ㅅ'(ᄃᆞ)가 없는 토에서 '-ㅏᄋᆞ-'가 쓰인 예이다.

(34)

ᄉᆞ ᄇᆡ ㅁ ㅗ ㅏ ㄹ ㄱ ᄂᆞ　　禮ᄉᆞᄇᆡㅁㅗㅏㄹㄱᄂᆞ(舊仁 11:08)
ᄉᆞ ᄇᆡ ㅁ ㅗ ㅏ ㄹ ㅣ　　歎ᄉᆞᄇᆡㅁㅗㅏㄹㅣᄉᆞᄒᆞᄂᆞㅣ(舊仁 11:13)
ᄉᆞ ᄇᆡ　ㅗ ㅏ ᄉᆞ ㄱ ㄹ ㅣ ㄴㄷㄱㅗㅏ　供養ᄉᆞᄒᆞᄉᆞᄇᆡㅗㅏᄉᆞㄱㄹㅣㄴㄷㄱㅗㅏ
(금광 3;06:22)

(32)와 (33)과 같은 예는 위에 예시한 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으나 (34)와 같은 예는 석독구결 자료 전체에서 단 3개 예만 나타난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졸고(1997)의 고려시대 구결문자 목록표를 참조.

점에서 (34)는 예외적인 존재이다. (34)는 동사 어간 'ン-'와 어미 '-ㄱ' 또는 '-ㅣ' 사이에 네 개의 선어말어미 '-白(ロ)トろ-'가 개재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예이다. (24)에서 '-ヒ-' 앞에 '-ロ-'가 통합함을 보았는데 (34)에서는 '-ト-' 앞에 '-ロ-'가 통합하였다. '-ト-'와 '-ヒ-'는 기능적으로 관련된 형태이므로 이들 앞에 통합한 '-ロ-'는 그 성격이 같은 것이라 판단된다. '-ト-'는 현재적 사실을 표현하는 데 쓰이고 이러한 기능은 '-ヒ-'에서도 나타난다. '-ト-'와 '-ヒ-'는 밀접히 관련된 문법형태로 여겨지지만 그 분포에 다른 점도 있다.[51] 그 대표적인 차이점은 '-ナ-'와 '-ヒ-'는 하나의 토 안에 공존할 수 없는데 다음 예에 보듯이 '-ナ-'와 '-ト-'는 하나의 토에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다.

(35)-a

ン ナ ト ㄱ 矣 ミ	然ミンナトㄱ矣ミ(화엄 14;15:14)
ン ナ 尸 矣 ミ	不ンナ尸矣ミ(화엄 14;14:16)

(35)-b

ン ナ ト ㅣ	大師子吼しンナトㅣ(舊仁 11:22)
ン ナ ㅣ	如リカンナㅣ(舊仁 15:25)

(35)는 '-ト-'의 유무에 의해 대립되는 형태를 보인 것인데 이러한 대립은 매우 드물어 다른 어미구조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ンナトㄱ矣ミ'와 같이 '-ㄱ' 앞에서는 '-ト-'가 통합하지만 'ンナ尸矣ミ'와 같이 '-尸' 앞에서는 '-ト-'가 통합하지 않는다. '-ト-'가 시상적으로 실현 또는 현재를 표현하는 '-ㄱ'과 통합하는 사실은 '-ト'의 의미 기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35)는 앞의 (6)의 예에서 언급하였듯이 *'-ナヒ-'와 같은 구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 '-ナト-'와 같은 구성은

51) '受ロヒㄱミ'(舊仁 11:12)는 '-ㄱミ' 앞에 '-ヒ-'가 결합한 것이다. 이 예와 (32)-b의 'ンニトㄱミ'를 비교해 보면 '-ㄱミ' 앞에서 '-ト-'와 '-ヒ-'가 교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매우 드물어 그 차이를 분석하여 일반화하기 어렵다.

존재함을 보여 준다.

'-ㅏ-'의 분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ㅏ-'에 선접하는 선어말어미에는 '-ㅅ-', '-白-', '-ㄴ-' 및 '-ㅁ-'가 있고, 後接하는 선어말어미에는 '-ㄹ-'가 있다. '-ㅏ-'가 쓰인 문장들은 현재적 시상을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점에서 '-ㅏ-'는 현실법 또는 현재 시상의 선어말어미인 '-ㅌ-'와 의미론적으로 관련된 것이다.[52]

2.4. '-ᄒᆞ(리)-'

15세기 국어의 '-리-'에 대응하는 '-ᄒᆞ-'는 동명사형어미 '-ㄹ'과 계사 '이'의 결합으로 생성된 선어말어미이다. 석독구결에서 '-ᄒᆞ-'는 매우 다양한 구성에서 빈번하게 쓰인 구결자이다. 서로 비슷한 토를 유형별로 나누어 '-ᄒᆞ-'의 분포를 기술하기로 한다.

(36)-a

ᄉᆞᄒᆞᄀᆞᄒᆞᄆᆞ 在ᄉᆞᄒᆞᄀᆞᄒᆞᄆᆞ尸人(화소 35;08:03)
ᄉᆞᄎᆞᄒᆞᄀᆞᄒᆞᄀᆞ 衰歇ᄉᆞᄎᆞᄒᆞᄀᆞ(화소 35;11:12)
ᄉᆞᄂᆞᄒᆞᄀᆞᄒᆞᄆᆞ 無等爲入ᄉᆞᄂᆞᄒᆞᄀᆞᄒᆞᄆᆞ(화엄 14;02:09)

(36)-b

ᄅᆞᄆᆞᄒᆞᄀᆞᄒᆞᄂᆞ 令ᄅᆞᄆᆞᄒᆞᄀᆞᄒᆞᄂᆞᄉᆞᄀᆞ(화소 35;09:15)[53]
ᄉᆞᄅᆞᄆᆞᄒᆞᄀᆞᄒᆞᄂᆞ 滿ᄉᆞᄅᆞᄆᆞᄒᆞᄀᆞᄒᆞᄂᆞᄉᆞᄀᆞ(화소 35;12:17)
ᄉᆞᄅᆞᄆᆞᄒᆞᄀᆞᄒᆞᄂᆞ 成就ᄉᆞᄅᆞᄆᆞᄒᆞᄀᆞᄒᆞᄂᆞ尸入ᄂᆞ(화소 35;16:16)

---

52) 이두에서 '內'는 고려 초기까지만 쓰였다. 이두에서 '內'는 '臥'로 교체되어 쓰이며 그 과도기에 '內臥'와 같은 중복형 표기도 나타난다(이승재 1992 : 164-166). 이 '內臥'는 조선 초기의 이두문에도 나타난다(박성종 1996 : 248). 석독구결의 '-ㅌ-'는 이두의 '內'에 대응하고, '-ㅏ-'는 '臥'에 대응한다. 이두의 '臥'는 항상 '乎'와 동반하여 '臥乎'와 같은 형태로 쓰이지만, 석독구결의 '-ㅏ-'는 앞에서 보았듯이 단독으로 쓰이는 예도 빈번하다. 그리고 석독구결에서는 '-ㅌ-'의 사용 빈도가 '-ㅏ-'보다 월등히 높다.

53) 화엄경소에 나온 '生ᄅᆞᄆᆞᄒᆞᄀᆞᄒᆞᄂᆞ'도 이와 같은 구성일 것이다.

(36)-c

ノ　　ヲ ミ セ ロ　後際ㅅノヲミセロノ尸ㅅリナㅣ(화소 35:08:13)

(36)-a는 '-ミセ-'앞에 '-ヲ-'가 통합하고 그 앞에 다시 '-ム-' 또는 '-ナ-'가 통합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ヲ-'보다 '-ム-', '-ナ-', '-ㅇ-'가 어간에 더 가까이 통합한다. (36)-b는 같은 구성의 '-ヲ-'앞에 '-ㅇ-'가 통합한 것이다. (36)-c는 같은 구성의 '-ヲ-' 앞에 'ノ-'(ᄒᆞ+오-)가 통합한 것인데 'ノ-'에는 선어말어미 '-오-'가 포함되어 있다.

(36)-b의 'ㅅリㅇヲミセㅣ'에 통합한 '-ㅇ-'는 두 가지 문법형태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ㅇヲ-'의 '-ㅇ-'는 '-ヲ-'에 선접한 선어말어미 '-오-'라고 보는 것이다. (36)-c에서 '-ヲ-' 앞에 선어말어미 '-오-'가 결합함이 확인된다. 둘째, '-ㅇヲ-'의 '-ㅇ-'를 '-ロ-'의 이형태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ㅅリㅇヲミセㅣ'의 '-ㅇ(오)-'가 사동접사 '-リ-' 뒤에서 '-ロ(고)-'의 'ㄱ'이 탈락한 형태라고 간주할 때 성립한다. 이승재(1996b)는 구결자료에서 나타난 'ㄱ'탈락현상을 논하였는데 사동접사 '-リ-' 뒤에서 'ㄱ'이 탈락한 현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興盛ンまㅅリロロセノヲか'(금광 3;15:09)의 'ㅅリロ'(ᄒᆞ이고)에서 보듯이 사동접사 '-リ-'뒤의 'ㄱ'이 탈락하지 않고 있다. '淸淨ㅅリナヲか'(화엄 14;09:22)도 그러한 예이다. 사동접사 '-リ-'뒤의 'ㄱ'이 탈락하지 않고, '說ㅇヲミセㅣンナ尸ㅅし'(화소 35;09:02)와 같이 사동접사 '-リ-'가 선접하지 않음에도 'ㅇヲミセㅣ'가 결합하므로 '-ㅇ-'는 '-ロ-'의 이형태가 될 수 없다.

(36)-a에 나타난 '-ム-'와 '-ナ-'간의 계열적 교체를 근거로 '-ム-' : '-ナ-'가 문법적으로 대립하는 형태라고 기술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ムナ-'와 같은 구성이 존재할 뿐 아니라 '-ム-'와 '-ナ-'가 계열관계를 보여 주는 예가 달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36)-a의 '-ム-'와 '-ナ-'는 각각 '-Ø-'형과 대립한다고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37)-a

ᄉᆞᄂᆞᄆᆞᄒᆞᄑᆞᄋᆞᄀᆞ 有ᄒᆡᄉᆞᄂᆞᄆᆞᄒᆞᄑᆞᄋᆞᄀᆞ(舊仁 14:19)

ᄉᆞᄂᆞᄅᆞᄒᆞᄑᆞᄋᆞᄀᆞ 無ᄒᆡᄉᆞᄂᆞᄅᆞᄒᆞᄑᆞᄋᆞᄀᆞ(舊仁 14:19)

(37)-b

ᄉᆞᄒᆞᄒᆞᄑᆞᄉᆞᄀᆞ 應ᄒᆞᄉᆞᄒᆞᄒᆞᄑᆞᄉᆞᄀᆞ(화엄 14;14:03)

ᄉᆞᄂᆞᄒᆞᄑᆞᄉᆞᄀᆞ 爲ᄉᆞᄂᆞᄒᆞᄑᆞᄉᆞᄀᆞ(화소 35;01:03)

ᄉᆞᄒᆞᄑᆞᄉᆞᄀᆞ 獲ᄑᆞᄀᆞᄉᆞᄋᆞᄅᆞᄉᆞᄒᆞᄑᆞᄉᆞᄀᆞ(화엄 14;02:18)

(37)은 모두 '-ᄑᆞᄉᆞᄀᆞ' 앞에 '-ᄒᆞ-'가 붙은 것인데, (37)-a는 '-ᄒᆞ-' 앞에서 '-ᄅᆞ(고)-'와 '-ᄅᆞ(오)-'가 교체된 예이다. 주체존대의 '-시-' 뒤에서는 'ᄀᆞ'탈락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ᄉᆞᄂᆞᄅᆞᄒᆞᄑᆞᄋᆞᄀᆞ'의 '-ᄅᆞ-'는 '-ᄅᆞ-'의 이형태라 하기 어렵다. (37)-b는 '-ᄒᆞ-' 앞에서 '-ᄒᆡ-'와 '-ᄂᆞ-'가 계열적으로 교체된 구성이다.

(38)-a

ᄉᆞᄂᆞᄒᆞᄒᆡ 誦ᄉᆞᄒᆞᄉᆞᄂᆞᄒᆞᄒᆡ(금광 3;14:01)

ᄉᆞᄂᆞᄒᆞᄒᆞ 增益ᄉᆞᄂᆞᄒᆞᄒᆞ(화엄 14;10:07)

ᄉᆞᄂᆞᄒᆞᄀᆞᄉᆞᄆᆞᄂᆞ 不ᄒᆞᄉᆞᄂᆞᄒᆞᄀᆞᄉᆞᄆᆞᄂᆞ(금광 3;14:03)

(38)-b

ᄉᆞᄅᆡᄂᆞᄒᆞᄒᆞ 淸淨ᄉᆞᄅᆡᄂᆞᄒᆞᄒᆞ(화엄 14;09:22)

ᄅᆡᄂᆞᄒᆞᄒᆞ 入ᄅᆡᄂᆞᄒᆞᄒᆞ(화엄 14;09:24)

(38)-c

ᄉᆞᄀᆞᄂᆞᄒᆞᄆᆞ 無ᄅᆡᄉᆞᄀᆞᄂᆞᄒᆞᄆᆞ(화엄 14;14:09)

(38)-a는 '-ᄒᆞ-' 앞에 '-ᄂᆞ-'가 통합한 것이고, (38)-b는 '-ᄂᆞᄒᆞ-' 앞에 사동접사 '-ᄅᆡ-'가 통합한 것이다. (38)-c의 '-ᄀᆞᄂᆞᄒᆞ-'는 '-ᄒᆞ-' 앞에 '-ᄀᆞᄂᆞ-'가 통합한 것인데 '-ᄀᆞ-', '-ᄂᆞ-', '-ᄒᆞ-'가 각각 다른 문법범주에 속함을 보여 준다. '-ᄀᆞᄂᆞᄒᆞ-'와 같은 구성은 확인법과 추정법 사이에 '-ᄂᆞ-'가 놓이는 통합관계를 알려 준다. 'ᄉᆞᄀᆞᄂᆞᄒᆞᄆᆞ'는 'ᄉᆞᄀᆞ'+'ᄂᆞᄒᆞᄆᆞ'와 같이 분석하여 'ᄀᆞ'를 어말어미로 간주하고 'ᄂᆞ'를 용언 어간으로 보는

분석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ナ'의 이러한 용법은 매우 드물다.[54]

(39)-a

ノ ヲ ナ ㄱ ㄲ ㅣ　　成就ン尸丁ノヲナㄱㄲㅣ(금광 3;03:10)
ノ ヲ ナ ㄱ ㅅ ㅺ　　不ハノヲナㄱㅅㅺ(금광 3;07:11)
ノ ヲ　 ㄱ ㅅ ㅺ ミ　　置ンかノヲㄱㅅㅺミ(舊仁 15:13)

(39)-b

ミノ ヲ　 ナ ㅣ　　力ミノヲナㅣ(화엄 14;20:15)
ノ ヲ ㄲ ナ ㅣ　　不多ノヲㄲナㅣ(舊仁 03:24)

(39)-c

ノ ヲ ニ ロ ㅣ　　希有難量ノヲニロㅣ(금광 3;13:20)
ノ ヲ ニ　 か　　不動地ヒノヲニか(금광 3;07:12)

(39)-a, (39)-b는 '-ヲ-'뒤에 '-ナ-'가 통합한 것인데 (37), (38)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37)의 일부례와 (38)에서는 '-ナ-'가 '-ヲ-' 앞에 통합하였다. 이처럼 '-ヲ-'가 '-ナ-' 앞에 붙기도 하고 '-ナ-'뒤에 붙기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39)의 '-ヲナ-', '-ヲニ-'에 쓰인 '-ヲ-'는 형성적 관점에서 보면 동명사형어미 '-ㄹ'과 계사 '-이-'가 융합된 형태이다. 그러므로 '-ヲナ-'의 '-ナ-'와 '-ヲニ-'의 '-ニ-'는 선어말어미로 확립된 '-ヲ-'에 후접한 것이라기보다, '-ヲ-'에 포함된 계사 어간 '-이-'에 後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때 '-ナ-'는 선어말어미로서의 '-ヲ-'에 후접한 것이 아니라 동명사형어미 '-ㄹ'과 융합된 계사 어간에 후접한 것이 된다. (37), (38), (39)에 나타나듯이 '-ヲ-'가 '-ナ-'의 前後에 통합하는 현상은 '-ヲ-'가 동명사형어미와 계사의 융합으로 생성된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된다.[55]

---

54) '-ナ-' 앞에 'ミ'가 붙은 것은 석독구결 자료 전체에서 단 2개만 보인다. (38)-c와 '成就ンミナㄱㅅㅺ'(금광 3;14:16).

55) 석독구결의 '-ヲ-'는 완전한 선어말어미로 기능하는 것도 있고, 동명사형어미 '-ㄹ'과 계사 어간이 융합된 형태로서의 성격을 띤 것도 존재한다. '-ヲ-'가 '-ナ-'의 앞뒤에 놓이는 현상은 이러한 이중성에 기인하는 듯하다. 15세

다음 (40)과 (41)은 '-ᄒᆞ-'가 선어말어미 '-ㅂ-'에 先接하기도 하고 後接하기도 하는 예이다.

(40) '-ᄒᆞ-'가 '-ㅂ-'에 후접

ᄉᆞ 白 ㅂ ᄒᆞ ᄀᆞ	供養ᄉᆞ白ㅂᄒᆞᄀᆞ(화엄 14;11:11)
ᄉᆞ ᄅᆞ ㅂ ᄒᆞ ᄀᆞ	化ᄉᆞᄅᆞㅂᄒᆞᄀᆞ(화엄 14;14:18)
ᄉᆞ ㅂ ᄒᆞ ᄀᆞ	得ᄉᆞㅂᄒᆞᄀᆞ(금광 3;14:05)
ᄅᆡ ㅂ ᄒᆞ ᄀᆞ	所ᄅᆡㅂᄒᆞᄀᆞ(화엄 14;10:13)
支 ㅂ ᄒᆞ ᄀᆞ	離支ㅂᄒᆞᄀᆞ(화엄 14;11:22)
ᄒᆡ ㅂ ᄒᆞ ᄀᆞ	爲ᄒᆡㅂᄒᆞᄀᆞ(화엄 14;12:22)
ᄆᆞ ㅂ ᄒᆞ ᄀᆞ	現ᄆᆞㅂᄒᆞᄀᆞ(화엄 14;13:12)

(41) '-ᄒᆞ-'가 '-ㅂ-'에 선접

ᄂᆞ ᄒᆞ ㅂ ᄒᆞ ᄀᆞ	思議ᄂᆞᄒᆞㅂᄒᆞᄀᆞ(화엄 14;13:14)
ᄂᆞ ᄒᆞ ㅂ ᄆᆞ ᄉᆞ ᄀᆡ	思議ᄂᆞᄒᆞㅂᄆᆞᄉᆞᄀᆡ(화엄 14;13:15)
ᄂᆞ ᄒᆞ ㅂ ᄀᆡ ᄂᆡ	天命ᄂᆞᄒᆞㅂᄀᆡᄂᆡ(화소 35;10:07)

(40)은 '-ᄒᆞ-'가 '-ㅂ-'에 후접한 것이다. 'ᄉᆞㅂᄒᆞᄀᆞ'(ᄒᆞᄂᆞ리며)는 'ᄒᆞ+ᄂᆞ+리+며'로 분석되며 그 뜻은 '하는 것이며' 정도로 파악된다. (41)은 '-ᄒᆞ-'가 '-ㅂ-'에 선접한 것인데, 특히 첫번째 예 'ᄂᆞᄒᆞㅂᄒᆞᄀᆞ'는 하나의 토에 '-ᄒᆞ-'가 두 번이나 들어간 특이한 모습을 보여 준다. 'ᄂᆞᄒᆞㅂᄒᆞᄀᆞ'(호리ᄂᆞ리며)는 'ᄒᆞ+오+ㄹ+이+ᄂᆞ+리+며'로 분석되는데 형성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동명사형어미와 계사가 두 번 겹쳐져 있다. '-ᄒᆞ-'의 이와 같은 쓰임은 '-ᄒᆞ-'가 단일한 기능을 하는 선어말어미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ᄒᆞ-'가 동명사형어미와 계사의 융합형으로부터 비롯된 어휘적 기능과, 선어말어미로서 새롭게 획득하게 된 문법적 기능 사이에서 유

기국어에서 선어말어미 '-으리-'의 배열 순서는 유동적이다. 최동주(1995b : 45-46)는 '-으리-'의 순서를 {더}의 앞뒤, 그리고 '-오-' 뒤에 놓았다. 최동주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으리-}에 기원적으로 관형형어미와 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데에서 찾았다.

동적이었던 상태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된다. 달리 말해 그것의 형성소가 가진 의미 기능과 문법화함으로써 획득한 선어말어미로서의 기능이 '-ㅎ-'에 복합되어 있으며, 이러한 복합성으로 인하여 '-ㅎ-'의 통합관계에 유동성을 보인 것이 (38)과 (39), (40)과 (41)의 예들이다.[56]

(40)의 'ㅅ白ㅌㅎ가'와 'ㅅㅁㅌㅎ가'는 겸양법 '-白-'과 강조 혹은 확인적 기능을 하는 '-ㅁ-'가 '-ㅌㅎ-' 앞에 통합 가능한 선어말어미임을 보여 주는 예이기도 하다.

(42)

ㅅ ㅌ ㄱ ㅎ 가 調ㅅ ㅏ ㅌ ㅁ ㄱ 入 し ㅅ ㅌ ㄱ ㅎ 가(화엄 14;13:04)

(42)의 'ㅅㅌㄱㅎ가'는 매우 특이한 구성의 토이다. 'ㅅㅌㅎ가'는 흔히 나타나는 것이나 'ㄱ'이 개재된 'ㅅㅌㄱㅎ가'는 이것이 유일한 예이다. 동명사형어미 'ㄱ'의 '-ㄹ'과 'ㅎ'의 '-ㄹ'이 중복된 구성이다. 'ㅅㅌㄱㅎ가'와 같은 예는 'ㅎ'가 선어말어미화하면서 'ㅎ'에 포함된 동명사형어미 '-ㄹ'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그 앞에 동명사형어미 '-ㄱ'을 다시 표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ㅎ'의 기능 변화에 수반된 형태 인식의 착오로 인해 'ㅅㅌㄱㅎ가'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게 된 듯하다. 음운론적 관점에서는 '-ㄱ'의 말음 'ㄹ'이 뒷음절에 영향을 미쳐 'ㄹ'이 중복된 결과 'ㅅㅌㄱㅎ가'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해 볼 수도 있다.

(40), (41), (42)의 예들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실은 선어말어미 '-ㅌ-'와 '-ㅎ-'가 하나의 어절에 공존하며 통합된다는 점이다. 15세기 문법에서 현재시제는 '-ㄴ-'로 표현되고, 미래시제는 추정법을 나타내기도 하는 '-리-'에 기대어 표현된다(최동주 1995b: 64). 서로 다른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형태가 하나의 어절에 공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ㅌㅎ-'에 쓰인 '-ㅎ-'는 시상과는 무관한 서법형태(추정법)로 보아야 한다. 석

56) (40)의 '所ㅣㅌㅎ가' 이하에 놓인 예들은 '-ㅌㅎ가' 앞에 쓰인 구결자는 모두 어간 또는 어간말음(절)을 표기한 글자이다. '所ㅣㅌㅎ가'(바 이ᄂᆞ리며), '現ㅁㅌㅎ가'(낱오ᄂᆞ리며), '離ᄎㅌㅎ가'(여희ᄂᆞ리며), '爲ㅣㅌㅎ가'(사ᄂᆞ리며).

독구결에 쓰인 '-ㅊ-'는 그 문법적 지위가 유동성을 띤 면이 있기 때문에 사용된 문맥과 환경을 살펴 그 기능을 규정해야 한다.[57]

(43)

ᄉᆞᄒᆞᄀᆞᄎᆞᄒᆞ　　了ᄉᆞᄒᆞᄀᆞᄎᆞᄒᆞᄉᆞᄂᆡ(화소 35;24:15)
ᄀᆞᄎᆞᄒᆞ　　至ᄀᆞᄎᆞᄒᆞ(화소 35;24:13)
ᄀᆞᄎᆞᄀᆡ 矣　得ᄀᆞᄎᆞᄀᆡ矣(화엄 14;10:08)

'-ᄀᆞ-'가 선어말어미 '-오-'로 기능할 때는 그 뒤에 동명사형어미가 後接함이 원칙이다. (43)에서처럼 '-ᄀᆞ-'가 '-ㅊ-'에 선접한 이유는 '-ㅊ-'에 동명사형어미 '-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58] 그런데 (43)의 'ᄀᆞ'는 선어말어미 '-오-'에 대응하는 것인지 혹은 '-ㅁ(고)-'의 'ㄱ'이 탈락한 형태인지 문제가 된다. 'ᄉᆞᄒᆞᄀᆞᄎᆞᄒᆞ'에서는 '-ᄀᆞ-'가 '-ᄒᆞ(시)-' 뒤에 놓여 있는데 주체존대법 '-시-' 뒤에서 'ㄱ'탈락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이 '-ᄀᆞ-'는 '-ㅁ(고)-'의 'ㄱ'탈락형일 수 없다. (37)의 'ᄉᆞᄀᆞᄆᆞᄎᆞ尸ᄋᆞᄀᆡ'와 'ᄉᆞᄀᆞᄅᆞᄎᆞ尸ᄋᆞᄀᆡ'에서 보았듯이 '-ᄀᆞ(시)-' 뒤에서 '-ㅁ(고)-'와 '-ㄹ(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서 음운론적 환경상 '-ㄹ(오)-'는 '-ㅁ(고)-'에서 'ㄱ'이 탈락한 형태가 될 수 없다. 15세기에서는 확인법이 주체존대법에 선행하는 '-거시-'라는 순서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면 (43)의 '-ᄀᆞ(오)-'는 이른바 대상·인칭법의 선어말어미라 할 수 있다.

---

57) 최동주(1995b: 64) 교수는 {-으리-}의 기본의미는 '추정'으로 잡고 '미래'의 의미가 문맥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든가 아니면 추정과 미래를 포괄할 수 있는 다른 개념을 기본의미로 제시하는 방법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58) '-ᄀᆞ-'가 '-ㅊ-'에 선접한 예에는 '慧藏ᄉᆞᄂᆞᄆᆞᄎᆞᄀᆡᄉᆞ'(화소 35;20:04), '捨ᄉᆞᄂᆞᄆᆞᄎᆞ皿'(화소 35;10:11)와 같은 것도 있다. 이 예들에 쓰인 'ᄂᆞᄆᆞ'의 정체가 밝혀져 있지 않아 'ᄂᆞᄆᆞ'에 後接한 'ᄀᆞ'가 선어말어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2.5. '-ㅇ(아)-'

석독구결에서 선어말어미로 기능하는 '-ㅇ-'와 '-ㅿ-'는 15세기의 확인법 선어말어미 '-아-'와 '-거-'에 대응한다. '-ㅁ-'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나 '-ㅇ-', '-ㅿ-'와는 다른 분포상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ㅇ-', '-ㅿ-', '-ㅁ-'는 계열적 교체관계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연관성을 가진 형태이다. 특히 '-ㅇ-'와 '-ㅿ-'가 계열관계에 있음은 명백하게 입증된다. 2.1.1절에서 '-ㅇ-', '-ㅿ-', '-ㅁ-'가 보여 주는 통합관계상의 특성은 언급되었으므로 이 구결자들에 대한 논의는 통합관계보다 계열적 교체관계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편의상 '-ㅇ-', '-ㅿ-', '-ㅁ-'를 각 節별로 나누어 놓았지만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는 서로 관련지어 다룬다.

(44)-a

ᄂᆞᄋᆞ ᄀᆞᄉᆞᄆᆞ 清淨ᄂᆞᄋᆞᄀᆞᄉᆞᄆᆞ(금광 3;07:01)

ᄂᆞᄼᆞ ᄀᆞᄉᆞᄆᆞ 破滅ᄂᆞᄼᆞᄀᆞᄉᆞᄆᆞ(금광 3;02:09)

ᄂᆞ ᄀᆞᄉᆞᄆᆞ 成就ᄂᆞᄀᆞᄉᆞᄆᆞ(화소 35;25:12)

(44)-b

ᄂᆞᄋᆞᄂᆞᄀᆞᄉᆞᄆᆞ 成就ᄂᆞᄋᆞᄂᆞᄀᆞᄉᆞᄆᆞ(금광 3;14:16)

ᄂᆞ ᄂᆞᄀᆞᄉᆞᄆᆞ 冥暗ᄂᆞᄂᆞᄀᆞᄉᆞᄆᆞ(금광 3;15:02)

(44)-c

ᄂᆞ ᄃᆞᄑᆞᄉᆞᄆᆞ 爲ㅅᄂᆞᄃᆞᄑᆞᄉᆞᄆᆞ(금광 3;13:16)

(44)-a는 'ᄂᆞ__ᄀᆞᄉᆞᄆᆞ'와 같은 구성에서 '-ㅇ-' : '-ㅿ-' : '-∅-'가 상호 교체되는 계열관계를 보여 준다.[59] (44)-b의 'ᄂᆞᄋᆞᄂᆞᄀᆞᄉᆞᄆᆞ'는 '-ㅇ-'에 '-ᄂᆞ-'가 통합한 특이한 구성인데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44)-c의 'ᄂᆞᄃᆞᄑᆞᄉᆞᄆᆞ'에서 보듯이 '-ᄑᆞᄉᆞᄆᆞ' 앞에서는 '-ㅇ-'가 통합되는 일이 없

59) '爲ㅅᄂᆞᄂᆞᄒᆞᄇᆞᄅᆞᄀᆞᄉᆞᄆᆞ'(舊仁 11:22)에 쓰인 '-ᄅᆞᄀᆞᄉᆞᄆᆞ'도 이 예들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나 이 토의 형태 분석이 확실치 않아서 유보해 둔다.

다. 확인법의 '-ㅗ-'는 시제상으로 과거 또는 완료의 의미를 수반한다. 따라서 동명사형어미로서 비완료의 의미 기능을 지닌 '-ㄷ'와 확인법은 하나의 어미구조체 안에서 공존하기 어려운 것이다.[60]

(45)-a

見ㅗㄱㅣㅓㄱ (화엄 14;05:04)[61]

見白ㅗㄱㅣㅓㄱ (화엄 14;08:04)

(45)-b

執持ᄂᆞᄉᆞㄱㅣㅓㄱ (화엄 14;04:18)

觀ᄂᆞ白ᄉᆞㄱㅣㅓㄱ (화엄 14;08:07)

(45)-ab는 '-ㄱㅣㅓㄱ'이라는 어미구조체 앞에서 '-ㅗ-' : '-ᄉᆞ-'가 교체된 것인데 (44)-a와 마찬가지로 두 구결자의 계열관계를 입증해 준다. (44)와 (45)는 '-ㅗ-'와 '-ᄉᆞ-'가 같은 문법범주에 속하면서 대립되는 문법형태임을 보여 준다.

(46)-a

證得ᄂᆞㅗㄱㅜㄴᄃᆞᄒᆡ (유가 20;30:11)

入ᄂᆞᄉᆞㄱㅜㄴᄃᆞᄒᆡ (유가 20;25:22)

(46)-b

離ᄂᆞㅗㄱㅜㄴᄃᆞᄉᆞ(유가 20;22:06)

鮮白ᄂᆞᄉᆞㄱㅜㄴᄃᆞᄉᆞ(유가 20;16:12)

(46)-c

饒益ᄂᆞᄆᆞㅜㄴᄃᆞᄒᆞᄉᆞ(유가 20;06:09)

證得ᄂᆞᄆᆞㅜㄴᄃᆞᄒᆡ (유가 20;31:08)

---

60) 15세기 문법에서는 '-ㄹ' 앞에 '-아-'가 결합한 'ᄒᆞ얄'과 같은 예가 나타난다. 고영근(1981 : 33, 36)에서 'ᄒᆞ얄'에 대한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다.

61) '-ㅗㄱㅣㅓㄱ'은 동사 '見', '執', '得'에만 붙어 있다. 그러나 '執ᄉᆞㄱㅣㅓㄱ' (화엄 14;04:10)도 보인다.

(46)-ab는 어미 '-ㄱ丁' 앞에서 '-ㅅ-' : '-ㅿ-'가 계열적으로 교체되어 대립된 문법형태임을 보여 준다. 이 예들을 (46)-c와 비교해 보면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46)-c는 어미 '-尸丁' 앞에서 '-ㅅ-' 또는 '-ㅿ-'가 통합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ㄱ丁'와 '-尸丁'의 '-ㄱ'과 '-尸'은 완료와 非完了의 시상 대립을 이루는 형태로 생각되는데, 비완료를 나타내는 '-尸' 앞에 '-ㅅ-'나 '-ㅿ-'가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은 확인법의 '-ㅅ-', '-ㅿ-'의 의미 기능이 완료 또는 過去性과 관련되어 있음을 뜻한다.[62] 이 점은 (44)-c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47)

白ㅅㅁ ㄹㄱㆍ 知白ㅅㅁㄹㄱㆍㅅㄱ乃(舊仁 03:17)
ㅅ ㅅ ㅁㄱㆍ 無ᄂᆡㅅㅅㅁㄱㆍ(화소 35;10:09)
ㅅ白 ㅁㅏㄹㄱㆍ 禮ㅅ白ㅁㅏㄹㄱㆍ(舊仁 11;08)

'-白ㅅㅁㄹㄱㆍ'는 매우 복잡한 결합 양상을 보인다. 겸양법 '-白(숩)-'과 동명사형어미 '-ㄱ(-ㄴ)' 사이에 선어말어미로 추정되는 세 개의 구결자 '-ㅅㅁㄹ-'가 연속적으로 통합하였다.[63] '-ㅅㅁㄹ-'의 구결자들은 각각 하나의 선어말어미로 판단되므로 각각의 구결자는 같은 문법범주에 속하는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ㅅㅁㄹ-'의 '-ㅅ-'는 확인법 선어말어미이고, '-ㄹ-'는 동명사형어미에 선접하는 선어말어미 '-오-'일 것이다. 문제는 '-ㅅㅁㄹ-'의 '-ㅁ-'이다. 이 '-ㅁ-'는 화자의 심적 태도

62) '-ㅅ-'나 '-ㅿ-' 등의 문법 기능에 대한 고찰은 이들이 쓰인 구문과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 작업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한다.

63) '知白ㅅㅁㄹㄱㆍㅅㄱ乃'에 쓰인 '-ㄹㄱㆍ'와 '無ᄂᆡㅅㅅㅁㄱㆍ'에 쓰인 '-ㅁㄱㆍ'는 선어말어미 '-오-'+동명사형어미 '-ㄱ'+조사 '-ㆍ'로 분석된다. '-ㄱㆍ'는 한 형태로 융합하여 감동법어미로 쓰인다. '-ㄹㄱㆍ'와 함께 '-ㄴㄱㆍ'(舊仁 02:3), '-ㅁㄱㆍ(화소 35;11:19)도 나타난다. '善ㄴㄹㄱㅓ'(舊仁 03:20)에 쓰인 '-ㄹㄱㅓ'도 그 구성이 같고 의미 기능도 -ㄹㄱㆍ'와 근사하다.

를 나타내는 서법형태소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인 의미 기능은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47)의 예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ㅁ-'의 유무에 의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ㅁ-'의 의미 기능을 연구할 때 이러한 대립이 지닌 의미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48)

ᄉᆞᅀᆞᅀᆞᄆᆞᄅᆞ	動ᄉᆞᅀᆞᅀᆞᄆᆞᄅᆞ(화엄 14:20:11)
ᄉᆞᅀᆞᅀᆞᄆᆞᄒᆞ	稱量ᄉᆞᅀᆞᅀᆞᄆᆞᄒᆞ(화엄 14:09:05)
ᅀᆞᅀᆞᄀᆞᆷ	喪ᅀᆞᅀᆞᄀᆞᆷ(화소 35:10:09)

(48)은 모두 동명사형어미 '-ᄅᆞ(-ㄹ)', '-ᄒᆞ(-ㅁ)', '-ᄀᆞ(-ㄴ)' 앞에 '-ᅀᆞ(오)-'가 통합하고 여기에 확인법의 '-ᅀᆞ-'가 先接한 구성이다. '-ᅀᆞ-'가 '-ᅀᆞ(오)-'에 先接한 점에서는 (47)의 'ᄉᆞᅀᆞᅀᆞᄀᆞᄀᆞᆞ'와 같다.[64] '-ᅀᆞ-'가 '-ᅀᆞ(오)-'에 先接한 것은 15세기 국어와 비교해 볼 때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이다. 15세기 문법에서는 확인법 '-거-'가 '-오-'와 통합하면 '-과-'(ᄒᆞ과라) 또는 '-가-'(ᄒᆞ가니오)가 되며 타동·비타동에 따른 차이는 반영되지 않는다(고영근 1981 : 34-36). 그러나 석독구결에서 '-과-'와 '-가-'에 대응하는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49)-a

ᄉᆞᅀᆞᄀᆞ	出家ᄉᆞᅀᆞᄀᆞ(유가 20;08:09)
ᄉᆞᅀᆞᄉᆞ	來ᄉᆞᅀᆞᄉᆞ(금광 3;02:07)

(49)-b

ᄉᆞᅀᆞᄏᆞ	居ᄉᆞᅀᆞᄏᆞ(유가 20;26:10)
ᄆᆞᄏᆞ	除ᄆᆞᄏᆞ (유가 20;28:21)

(49)는 접속어미 '-ᄀᆞ', '-ᄉᆞ', '-ᄏᆞ' 앞에 '-ᅀᆞ-'가 결합한 것이다.

64) '久ᅀᆞᄅᆞ'(화소 35;10:19), '盡ᅀᆞᄅᆞ'(화엄 14;09:07)과 같이 동명사형어미 '-ᄅᆞ'에 'ᅀᆞ'가 선접한 예가 있으나 이 때의 'ᅀᆞ'는 '久'('오라-')와 '盡'('다ᄋᆞ-')의 어간말음을 표기한 것인 듯하다.

(49)-a가 보여 주는 양상은 15세기의 경우와 다르다. 15세기 문법에서는 '-(으)나', '-(으)며' 앞에 확인법 선어말어미 '-아-'가 결합할 수 없는 것인데 석독구결에는 이러한 결합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49)-b는 15세기의 문법과 같은 구성이다. 그러나 'ㅅㅣ斤'은 'ᄒᆞ야ᄂᆞᆯ'에 대응하고, '-ㅁ斤'은 'ᄒᆞ거ᄂᆞᆯ'의 '-거ᄂᆞᆯ'에 대응하는 토이다. 'ㅅㅣ斤'은 15세기의 '-아ᄂᆞᆯ'의 '-ᄂᆞᆯ'이 '-ᄂᆞ-'와 '-ㄹ'로 분석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50)

ㅅ ㅣ 攵　　動ㅅㅣ攵(화엄 14;10:20)
ㅅ 厶 攵 七　離散ㅅ厶攵七(화소 35;12:17)

(50)의 예는 동명사형어미와 같은 기능을 하는 '-攵' 앞에 확인법의 '-ㅣ-'와 '-厶-'가 결합한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석독구결의 한 특징이다. 'ㅅㅣ攵'은 15세기의 'ᄒᆞ얄'에 대응시킬 만한 구성이다.

(51)

ㅅ ㅣ ㅅ ㄷ ㄱ ㄴ　通達ㅅㅣㅅㄷㄱㄴ(舊仁 15:06)
ㅣ ㅅ ㄷ ㄹ ㅣ　說ㅣㅅㄷㄹㅣ(舊仁 02:21)

(51)의 '-ㅣㅅㄷ-'는 '-ㅁㅅㄷ-', '-厶ㅅㄷ-' 등과 구조적 공통성을 가진 것인데 이 형태들에 대한 논의는 졸고(1995)의 1.3.2절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후술할 (58)을 참조]

(52)-a

ㅅ ㅣ 七 ㅣ ノ 丁　未ㅣㅅㅣ七ㅣノ丁(금광 3;07:18)
ㅅ ㅣ 七　ノ 丁 入 ㄴ　貫飾ㅅㅣ七ノ丁入ㄴ(금광 3;06:08)
ㅅ ㄹ 七　ノ 丁 入 ㄴ　覆ㅅㄹ七ノ丁入ㄴ(금광 3;06:19)
ㅅ ㄹ 七　　丁 ㄴ　莊嚴ㅅ夕ㅅㄹ七丁ㄴ(금광 3;06:11)[65]

65) 'ㅅㄹ七丁ㄴ'은 'ㅅㄹ七丁入ㄴ'에서 '入'가 생략된 표기이다.

(52)-b

ᄉᆡ ᄀᆞᆫᄒᆞ	飽滿ᄉᆡᄀᆞᆫᄒᆞᄂᆞᆫᄃᆞᆯᄋᆞᆷ(금광 3;13:11)
ᄂᆞᆫ ᄒᆞ	滿足ᄂᆞᆫᄒᆞᄂᆞᆫᄃᆞᆯᄋᆞᆷ(금광 3;03:04)
ᄉᆡ ᄀᆞᆫᄒᆡ	解脫ᄉᆡᄀᆞᆫᄒᆡ(금광 3;03:18)

(52)-c

ᄂᆞᆨᄅᆡᄀᆞᆫᄒᆡ	證得ᄂᆞᆫᄂᆞᆨᄅᆡᄀᆞᆫᄒᆡᄂᆞᆫᄀᆞᆫ(유가 20;23:22)
ᄂᆞᆨᄅᆡᄀᆞᆫᄒᆡ	無ᄂᆞᆨᄅᆡᄀᆞᆫᄒᆡᄂᆞᆫᄃᆞᆯᄆᆞᆫ(금광 3;13:12)
ᄅᆡᄀᆞᆨᄅᆡᄀᆞᆫᄒᆡ	二ᄅᆡᄀᆞᆨᄅᆡᄀᆞᆫᄒᆡᄂᆞᆫᄀᆞᆫ(舊仁 15:06)

(52)의 '-ᄀᆞᆫᄒᆞ-'은 선어말어미 '-ᄀᆞᆫ-'와 감동법 '-ᄒᆞ-'의 결합으로 다시 분석될 수도 있으나, 석독구결의 '-ᄀᆞᆫᄒᆞ-'은 하나의 형태처럼 붙어서 쓰인다. (52)-a의 '-ᄀᆞᆫᄒᆞ-'과 '-ᄀᆞᆯᄒᆞ-'에서는 '-ᄀᆞᆫ-' : '-ᄀᆞᆯ-'의 교체가 나타난다. '-ᄀᆞᆯᄒᆞ-'을 '-옷-'으로 읽는다면(이승재 1996b) 이것은 '-ᄆᆞᄒᆞ-'과 직접 관련된 형태일 것이다. '-ᄀᆞᆫ-' : '-ᄀᆞᆯ-'의 교체는 고려 후기의 음독구결 자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52)-b는 사동접사 '-ᄉᆡ-'가 '-ᄀᆞᆫᄒᆞ-'에 선접한 것이다. 그러나 (52)c의 'ᄂᆞᆨᄅᆡᄀᆞᆫᄒᆡ' 등에 쓰인 'ᄅᆡ'는 계사 어간이다. 'ᄂᆞᆨᄅᆡᄀᆞᆫᄒᆡ'는 '혼이앗다'로 읽히는 것이며, 'ᄒᆞ+오+ㄴ(동명사형어미)+이(계사)+아+ㅅ+다'와 같이 분석된다.

(53)

ᄋᆞᄀᆞᆫ ᄭᅩ	服ᄋᆞᄀᆞᆫᄭᅩ(화엄 14;04:06)
ᄋᆞᄀᆞᆫ ᄒᆞ	捨ᄋᆞᄀᆞᆫᄒᆞ(화엄 14;04:24)

(53)은 어말어미 'ᄀᆞᆫ'에 강세첨사 '-ᄭᅩ'과 '-ᄒᆞ'가 후접한 것이므로 (53)의 'ᄀᆞᆫ'는 선어말어미가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ᄀᆞᆫ-'의 계열관계에서 드러난 중요한 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ᄀᆞᆫ-'와 '-ᄉᆞᆫ-'는 계열적으로 교체되는 선어말어미이며 이 교체는 문법적으로 대립되는 계열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47)과 같은 예에 나타나듯이 '-ᄀᆞᆫ-'와 '-ᄆᆞ-'는 하나의 어미구조체 또는 하나의 토에 공존하므로 이러한 '-ᄀᆞᆫ-'와 '-ᄆᆞ-'는 대립되는 문법형태가

아니다.

2.6. '-ㅿ(거)-'

'-ㅿ-'는 15세기의 선어말어미 '-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형태이다. '-ㅈ-'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한 '-ㅿ-'의 예를 고려하면서 이 구결자의 분포를 기술한다.

(54)-a

ᄉ 白 ㅿ ㄱ	觀ᄉ白ㅿㄱ(화엄 14;08:05)
白 ㅿ ㄱ	見白ㅿㄱ(화엄 14;08:06)
ᄉ ㅿ ㄱ	生ᄉㅿㄱ(유가 20;23:20)
ᄉ ㅿ ㄱ ㄴ	詰難ᄉㅿㄱㄴ(금광 3;05:20)

(54)-b

ᄉ ㅿ ㄱ入ㄴ	思惟ᄉㅿㄱ入ㄴ(유가 20;22:20)
ㄲ ㅿ ㄹ ㄱのㄴ	時ㄲㅿㄹㄱのㄴ(舊仁 03:13)

(54)의 '-ㅿ-'는 대부분 동명사형어미 '-ㄱ' 앞에 '-ㅿ-'가 결합한 것인데 15세기의 '-거-'에 대응한다. (54)-a에서 '-ㅿ-' 앞에 겸양법 선어말어미가 결합 가능함을 알 수 있고, (54)-b의 'ㄲㅿㄹㄱのㄴ'에서는 '-ㅿ-'와 동명사형어미 '-ㄱ' 사이에 선어말어미 '-ㄹ-'가 개재됨을 알 수 있다.

(55)

白 ㅈ ㄱ ㅣ ㅓ ㄱ	見白ㅈㄱㅣㅓㄱ(화엄 14;08:04)
ᄉ 白 ㅿ ㄱ ㅣ ㅓ ㄱ	觀ᄉ白ㅿㄱㅣㅓㄱ(화엄 14;08:07)

(45)의 예와 함께 (55)는 '-ㄱㅣㅓㄱ' 앞에서 '-ㅈ-' : '-ㅿ-'간의 계열적 교체를 보여 준다. 그러나 (54)의 'ᄉㅿㄱ'과 같은 구성에서는 '-ㅈ-'와 '-ㅿ-'간의 교체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즉 *'ᄉㅈㄱ'와 같은 토는 찾

아 볼 수 없다. 선어말어미들의 계열관계는 토의 형태나 구성소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난다.

(56)

ᄉᆞᄉᆞᆫᄒᆞᄂᆞᆫᄃᆡ 爲入ᄉᆞᄉᆞᆫᄒᆞᄂᆞᆫᄃᆡ(화엄 14:02:17)
ᄉᆞᄂᆞᆫᄒᆞᄂᆞᆫᄃᆡ 了知ᄉᆞᄂᆞᆫᄒᆞᄂᆞᆫᄃᆡ(유가 20:23:22)

이 예들은 '-ᄉᆞ-'에 '-ᄂᆞ-'가 후접하여 '-ᄉᆞᄂᆞ-'와 같은 통합을 보이는 것이다.[66] (56)의 'ᄉᆞᄉᆞᄂᆞᆫᄒᆞᄂᆞᆫᄃᆡ'와 'ᄉᆞᄂᆞᆫᄒᆞᄂᆞᆫᄃᆡ'는 '-ᄉᆞ-'의 유무에 의해 대립되는 것이며, '-ᄉᆞ-' 대신에 '-ㅿ-'나 '-ㅗ-'가 통합한 구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54), (56)과 같은 토에서는 '-ㅿ-'와 '-ᄉᆞ-'간의 계열적 교체가 나타나지 않으며 '-ᄉᆞ-'는 '-∅-'와 대립되는 모습만 나타난다.

(57)-a

ᄉᆞᄉᆞᄒᆞᄂᆞᄀᆞᄒᆞᄃᆡ 成就ᄉᆞᄉᆞᄒᆞᄂᆞᄀᆞᄒᆞᄃᆡ(舊仁 15:16)
ᄉᆞᄉᆞᄀᆞᄒᆞᄃᆡ 成佛ᄉᆞᄉᆞᄀᆞᄒᆞᄃᆡ(舊仁 15:19)
ᄉᆞᄀᆞᄒᆞᄃᆡ 無極ᄉᆞᄀᆞᄒᆞᄃᆡ(舊仁 11:04)

(57)-b

ᄉᆞᄉᆞᄂᆞᄒᆞᄃᆡ 住ᄉᆞᄉᆞᄂᆞᄒᆞᄃᆡ(화소 35:20:04)
ᄉᆞᄉᆞᄒᆞᄃᆡ 衰歇ᄉᆞᄉᆞᄒᆞᄃᆡ(화소 35:11:13)
ᄉᆞᄒᆞᄃᆡ 相應ᄉᆞᄒᆞᄃᆡ(유가 20:31:12)

(57)-a는 그 중간에 놓인 예를 기준으로 볼 때 'ᄉᆞᄉᆞ___ᄀᆞᄒᆞᄃᆡ'이라는 구성에서는 '-ᄒᆞᄂᆞ-'의 유무에 의한 대립이 나타나고, 'ᄉᆞ___ᄀᆞᄒᆞᄃᆡ'이라는 구성에서는 '-ᄉᆞ-' : '-∅-'간의 계열적 교체가 나타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57)-b에도 보인다. (57)-b의 중간 예를 기준으로

66) '-ᄉᆞᄂᆞ-'가 쓰인 토는 석독구결 전체에서 5개 예만 나타난다. 所ㅣᄉᆞᄂᆞᄒᆞᄂᆞᆫᄃᆡ(화엄 14:08:18), 爲入ᄉᆞᄉᆞᄂᆞᄒᆞᄂᆞᆫᄃᆡ(화엄 14:02:17), 莫ᄉᆞᄂᆞᄒᆞᄂᆞᆫᄃᆡ(화엄 14:14:08), 問ᄉᆞᄂᆞᄀᆞᄃᆡ(화엄 14:02:12), 住ᄉᆞᄉᆞᄂᆞᄒᆞᄃᆡ(화소 35:20:04).

'ㅅ_ㅌㅓ'이라는 구성에서는 '-ㄴ-'와 '-∅-'간의 계열적 교체가, 'ㅅ_ㅌㅓ'이라는 구성에서는 '-ㅿ-'와 '-∅-'간의 계열적 교체가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에서 '-ㅿ-'가 '-∅-' 이외의 다른 선어말어미와 교체된 예는 보이지 않는다.

(58)

ㅅㆍㅎㄴㄱㄴㅣ	通達ㅅㆍㅎㄴㄱㄴㅣ(舊仁 15:06)
ㅅㅗㅎㄴㄱ	散ㅅㅗㅎㄴㄱ(舊仁 03:20)
ㅅㅿㅎㄴㄱㄴㅣㆍ	登ㅅㅿㅎㄴㄱㄴㅣㆍ(舊仁 11:07)
ㅅㄴㅎㄴㄱㅗ	中ㆍ十ㅅㄴㅎㄴㄱㅗ(금광 3;13:18)
ㅅㅌㅎㄴㄱ	照ㅅㅌㅎㄴㄱ(舊仁 02:12)

주체존대법 '-ㄴ(勿)-'가 '-ㅎ-'에 後接할 때 '-ㅎ-' 앞에는 선어말어미 '-ㆍ-', '-ㅗ-', '-ㅿ-', '-ㄴ-', '-ㅌ-' 중의 하나가 반드시 선행한다. (58)은 '-ㅎㄴ-' 앞에 통합하는 선어말어미들의 교체를 보인 예이다. '-ㆍㅎㄴ-', '-ㅗㅎㄴ-', '-ㅿㅎㄴ-', '-ㄴㅎㄴ-', '-ㅌㅎㄴ-'에서 '-ㆍ-', '-ㅗ-', '-ㅿ-', '-ㄴ-', '-ㅌ-'는 외형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다섯개의 형태가 동일한 문법범주에 속하면서 대립되는 문법형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나의 문법범주에서 다섯개의 형태가 서로 대립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다. '-ㆍ-' : '-ㅿ-'가 계열적 교체를 보인 예는 다른 토에서도 발견되는 것이지만, '-ㄴ-'와 '-ㅌ-'가 이들과 계열적 교체를 보인 예는 찾아 보기 어렵다. '-ㆍ-' '-ㅿ-', '-ㅗ-', '-ㄴ-', '-ㅌ-'에서 '-ㆍ-'와 '-ㅿ-'는 확인법에 해당하는 선어말어미이고, '-ㄴ-'는 동작이나 상태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형태, '-ㅌ-'는 현재 시상을 나타내는 시상법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ㅗ-'의 의미기능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서법의 하나로서 화자의 심적 태도(주로 감동적 의미)를 표현하는 형태로 추정된다.

앞에서 '-ㆍ-'와 '-ㅿ-'의 계열관계와, '-ㄴ-'와 '-ㅌ-'간의 계열적 교체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ㆍㅎㄴ-'는 '-ㅿㅎㄴ-'와

대립되고, '-ㅿㅎㄴ-'는 '-ㅂㅎㄴ-'와 대립되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상위의 문법 차원에서 두 부류가 서로 어떤 대립관계를 이룬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이와 함께 '-ㅁㅎㄴ-'가 위의 형태 중 어느 것과 대립된 것인지 밝혀 내어야 할 것이다. '-ㅁㅎㄴ-'의 '-ㅁ-'는 '-ㅣㅎㄴ-' 및 '-ㅿㅎㄴ-'의 '-ㅣ-', '-ㅿ-'와 함께 확인법을 구성한 요소로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모든 '-ㅁ-'를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특히 '-ㅂ-'에 선접한 '-ㅁ-'는 확인법일 수 없다. 석독구결의 '-ㅁ-'는 그 성격을 명료히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이다.

(59)

ᄉᆞᆷᄀᆞᄅᆡᄒᆞᄉᆞᄆᆞ 在ᄉᆞᆷᄀᆞᄅᆡᄒᆞᄉᆞᄆᆞᄂᆞᆫᄃᆞ(유가 20;22:23)

ᄉᆞᄀᆞᄅᆡᄒᆞᄉᆞᄆᆞ 住ᄉᆞᄀᆞᄅᆡᄒᆞᄉᆞᄆᆞᄂᆞᆫᄃᆞᄉᆞᆫ (화소 35;07:19)

cf. ᄉᆞᄂᆞᄆᆞᄀᆞᄅᆡᄒᆞᄉᆞᄀᆞ 證ᄉᆞᄂᆞᄆᆞᄀᆞᄅᆡᄒᆞᄉᆞᄀᆞ(금광 3;13:09)

(59)는 동명사형어미가 포함된 '-ㄱᄅᆡᄒᆞᄉᆞ' 앞에서 '-ㅿ-' : '-∅-'가 계열적 교체를 보인 예이다. '-ᄅᆡᄒᆞᄉᆞ'의 '-ᄅᆡ-'는 계사이고, '-ᄒᆞᄉᆞ'은 감동법을 표현하는 형태이다. (59)의 cf.에 제시한 예는 '-ㄱᄅᆡᄒᆞᄉᆞ' 앞에 '-ㅁ-'가 통합한 것인데 '-ㅿ-' : '-ㅁ-'가 계열적 교체를 실현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예는 '-ㅁ-' 앞에 주체존대의 '-ㅇ-'가 통합한 것이 특이하다. 만약 '-ㅁ-'가 확인법의 선어말어미라면 이것이 '-ㅇ-' 뒤에 통합한 것은 음독구결 자료와 15세기의 문법에 나타나는 '-샤-'와 매우 다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ㅇㅁ-'의 '-ㅁ-'는 확인법 선어말어미이기 어려운 것이다. (59)에 나타난 '-ㅿ-'와 '-ㅁ-'간의 계열적 교체가 어떤 문법적 의미를 지닌 것인지는 이 예들이 쓰인 문장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한 후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60)-a

ᄉᆞᆷᄒᆞᄒᆞᄉᆞᄒᆞᄀᆞ 衰歇ᄉᆞᆷᄒᆞᄒᆞᄉᆞᄒᆞᄀᆞ(화소 35;11:12)

ᄉᆞᄒᆞᄉᆞᄒᆞᄀᆞ 充樂ᄉᆞᄒᆞᄉᆞᄒᆞᄀᆞ(화소 35;09:14)

(60)-b

ㅊ ㅿ ㅎ ㆍ ㅊ ㅣ 無ㅊㅿㅎㆍㅊㅣ(화소 35;12:16)

ㅅ ㅎ ㆍ ㅊ ㅣ 飢苦ㅅㅎㆍㅊㅣ(화소 35;09:15)

(60)-c

ㅟ ㅱ ㅎ ㆍ ㅊ ㅗ 生ㅟㅱㅎㆍㅊㅗ(화소 35;16:11)[67]

ㅅ ㅎ ㆍ ㅊ ㅗ 在ㅅㅎㆍㅊㅗㅅ尸人 (화소 35;08:03)

(60)-ab는 '-ㅎㆍㅊ-' 앞에서 '-ㅿ-' : '-∅-'가 계열적 교체를 보인 것이고, (60)-c는 같은 환경에서 '-ㅱ-' : '-∅-'가 교체된 것이다. 이 '-ㅱ(오)-'는 '-ㅗ(고)-'의 'ㄱ'이 계사 '이'(ㅟ) 뒤에서 탈락한 형태를 나타낸 것이라면 (60)-c는 '-ㅗ-' : '-∅-'가 서로 교체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ㄱㅟㆍㅊ-'의 'ㄱ'이 결합하든 '-ㅎㆍㅊ-'의 '-ㅎ-'가 결합하든[68] 그 앞에 '-ㅿ-'가 통합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ㄱㅟㆍㅊ-'의 '-ㄱ'은 시상적으로 완료상과 연관되고, '-ㅎㆍㅊ-'의 '-ㅎ-'에 포함된 동명사형어미 '-ㄹ'은 미래 혹은 비완료상과 관련되는 것이다. 이러한 時相的 차이와 무관하게 '-ㅿ-'가 결합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59)와 (60)에 쓰인 '-ㅿ-'는 時制 혹은 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46)의 예를 통해 논의했던 바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위점은 '-ㅿ-', '-ㅎ-', '-ㄱ'의 통사적 기능을 분석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61)-a

ㅅ ㅿ ㅁ ㅣ ㅱ 不ㅅㅿㅁㅣㅱ(화소 35;10:19)[69]

ㅿ ㅁ ㅣ ㅅ ㅣ 至ㅿㅁㅣㅅㅣ(화소 35;12:11)

ㅅ ㅁ ㅣ ㅅ ㅣ 殘缺ㅅㅁㅣㅅㅣ(화소 35;15:20)

---

67) '成就ㅅㅟㅱㅎㆍㅊㅣㅅㄴㅕ尸入ㄴ'(화소 35;16:16)와 같은 예도 있다.

68) '-ㄱㅟㆍㅊ-'과 '-ㅎㆍㅊ-'을 비교해 보면 '-ㅎㆍㅊ-'의 '-ㅎ-'가 동명사형어미 '-ㄹ'과 계사 '-이-'가 융합된 구성이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69) '未ㅟㅅㅁㅗㅱㅣ'(화소 35;11:19)와 같은 예도 발견된다.

(61)-b

ᄉᆞᄅᆞᄒᆞᆡ 震動ᄉᆞᄅᆞᄒᆞᆡ(舊仁 02:18)

ᄉᆞᄅᆞᄒᆞᄀᆞ 供養ᄉᆞᄅᆞᄒᆞᄀᆞ(화엄 14;16:05)

(61)-c

ᄉᆞᄒᆞᄭᅩ 開敷ᄉᆞᄒᆞᄭᅩ(화엄 14;05:11)

(61)-a는 '-ㅁᄂᆡ(ㄴ)-' 앞에서 '-ㅿ-' : '-Ø-'가 계열적 교체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61)-b에 나타나듯이 '-ㅎ-' 앞에서는 '-ㅁ-'만 결합할 수 있을 뿐이고 '-ㅿ-'가 결합한 예는 없다. (61)-c의 문말어미 '-ᄭᅩ' 앞에서 '-ㅎ-'가 통합된 것인데 '-ㅎᄭᅩ' 앞에 '-ㅇ-', '-ㅿ-', '-ㅁ-' 중의 어느 하나가 결합한 예는 찾을 수 없다.[70] 즉 *'ᄉᆞᄅᆞᄒᆞᄭᅩ' 등과 같은 구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61)-a에 나타난 'ㅁᄂᆞ', 'ㅁᄂᆡ', 'ㅇᄂᆡ'은 하나의 형태처럼 쓰인다. 이런 형태들에 쓰인 'ㅁ'와 'ㅇ'는 '-ㅿ-'와 계열적 교체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61)-a의 '-ㅿㅁᄂᆡᄂᆞᆡ' 등에 나타나 있듯이 '-ㅿ-'와 'ㅁᄂᆡ'이 하나의 토 안에서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ㅿㅁᄂᆡ-'의 '-ㅿ-'가 확인법이므로 '-ㅿㅁᄂᆡ-'의 '-ㅁ-'는 확인법에 속하는 것이 될 수 없다. '-ㅿㅁᄂᆡ-'의 '-ㅁᄂᆡ-'은 감동법어미 '곳'을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ㅿ'의 예를 지적해 둔다.

(62)-a

ㅿ ᄒᆞ 盡ㅿᄒᆞ(화소 35;25:10)

(62)-b

ᄀᆞᆨ ㅿ ᄀᆞᆮ 相ᄀᆞᆨㅿᄀᆞᆮ(舊仁 02:19)

---

70) 문말어미 '-ᄭᅩ' 앞에는 원칙적으로 '-ㅎ-'만 결합할 수 있다. 극히 예외적인 것이 화엄경에 나타나는데 '安隱ᄉᆞᄒᆞᄎᆞᄭᅩ'(화엄 14;02:22), '離ᄎᆞᄒᆞᄎᆞᄭᅩ'(화엄 14;02:21), '養ᄉᆞᄒᆞᄉᆞᄒᆞᄎᆞᄭᅩ'(화엄 14;02:20)가 그것이다. 이숭재(1993)는 'ᄎᆞ'를 지정문자로 보았고, 필자(1993)는 부사화접미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ᄭᅩ' 앞의 'ᄎᆞ'는 강세적 의미를 더하는 부수적 요소라고 해석하였다.

矣　　ㅿ ㄹ　非矣ㅿㄹ(舊仁 14:08)

(62)-a는 화엄경소에만 나타나는 예이다. 한자어 '盡' 뒤에 'ㅿ'가 통합된 특이한 것이다. (62)-b는 의문법어미로 생각되는 '-ㄹ'(오) 앞에 '-ㅿ-'가 선접한 것인데 (62)에 쓰인 'ㅿ'는 모두 선어말어미로 기능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71]

지금까지의 분석에서 드러난 '-ㅿ-'의 통합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ㅿ-'에 선접할 수 있는 선어말어미는 '-ㅸ-'뿐이다. 둘째, '-ㅿ-'가 '-ㄴ-'에 선접한 예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15세기 문법의 '-거시-'와 비교해 볼 때 차이가 큰 것이다. 석독구결에서 '-ㅿ-'가 '-ㄴ-'에 선접하는 경우, 그 사이에 'ㅅ'가 개재된 '-ㅿㅅ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ㅿ-'가 '-ㅏ-'에 선접한 특이한 예도 발견된다. '住ㅅㅿㅏㅌㄷ'(화소 35;20:04)과 같은 예가 그것인데, 이 예는 '-ㅿ-'와 '-ㅏ-'가 서로 다른 문법범주에 속하는 선어말어미임을 잘 보여 준다.

'-ㅿ-'의 계열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동명사형어미가 포함된 '-ㄱㅣㅈㄷ-' 앞에서 '-ㅿ-' : '-∅-'가 계열적 교체가 나타나며, '-ㅋㅈㄷ-' 앞에서도 '-ㅿ-' : '-∅-'의 계열적 교체가 나타난다. 둘째, '-ㅁㄷ(ㄴ)-' 앞에서는 '-ㅿ-' : '-∅-' 간의 계열적 교체가 나타난다. 셋째, '-ㅅㄴ-'앞에서 '-ㅈ-' '-ㅿ-', '-ㅁ-', '-ㅏ-', '-ㅌ-'는 서로 교체가 가능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 다섯 개 형태가 동일한 범주에서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ㅈㅅㄴ-' : '-ㅿㅅㄴ-' 그리고 '-ㅏㅅㄴ-' : '-ㅌㅅㄴ-'는 각각 서로 대립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나 '-ㅁㅅㄴ-'가 어느 형태와 대립된 것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

71) 유가사지론에 매우 기이한 형태인 '退失ㅅㅿㄲㅿㅅㅏㄲㅅ卄'(瑜伽 20;03:15-18)가 나타난다. 이 예의 'ㅿㄲ'은 'ㅿ'와 'ㄲ'이 결합한 특이한 것이며 'ㅿㄲㅿ'라는 구성도 해명하기 어려운 토이다. 필사상의 착오에 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2.7. '-ㅁ(고)-'

석독구결에서 'ㅁ'(고)는 여러 가지 문법형태를 표시하는데 연결어미로서의 '-ㅁ', 의문어미로서의 '-ㅁ' 선어말어미로서의 '-ㅁ-'가 대표적인 것이다. 선어말어미로서 쓰인 '-ㅁ-'의 분포를 앞에서 논의한 '-ㅈ-' 및 '-ㅿ-'와 관련지어 기술한다.

(63)-a

ᄉᆞᄆᆞᄀᆞᄂᆞ 住ᄉᆞᄆᆞᄀᆞᄂᆞ(舊仁 11:07)

ᄉᆞᅀᆞᄀᆞᄂᆞ 詰難ᄉᆞᅀᆞᄀᆞᄂᆞ(금광 3;05:20)

(63)-b

ᄉᆞᄆᆞ ᄀᆞ 起ᄉᆞᄆᆞᄀᆞ(舊仁 15:07)

ᄉᆞᄆᆞᄂᆞᄀᆞ 行ᄉᆞᄆᆞᄂᆞᄀᆞ(화소 35;09:10)

ᄆᆞᄂᆞᄀᆞ 無ᄆᆞᄂᆞᄀᆞ(화엄 14;09:05)

(63)-a는 동명사형어미 '-ㄱ' 앞에 '-ㅁ-'가 통합한 것으로 '-ㅁ-'는 '-ㅿ-'와 교체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ㅿ-'와 '-ㅁ-'는 계열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대립적 문법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63)-b는 '-ㅁ-'와 동명사형어미 '-ㄱ' 사이에 '-ᄂᆞ-'가 개재된 것으로 '-ㅁᄂᆞ-'와 같은 배열 순서를 보여 준다. 석독구결 자료에서 '-ㅁᄂᆞ-'와 같은 통합은 나타나지만 *'-ᄂᆞㅁ-'와 같은 통합례는 없다. 그러나 주체존대법의 '-시-'가 '-고-'에 선접한 '-ㅭㅁ-'나, 겸양법의 '-ᄉᆞᆸ-'이 '-고-'에 선접한 '-白ㅁ-'와 같은 통합례가 나타난다. '-ᄂᆞ-'가 '-ㅭ-'와 같은 주체존대법이라면 '-ㅭㅁ-'와 평행적 구조를 가진 *'-ᄂᆞㅁ-'와 같은 통합례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만 *'-ᄂᆞㅁ-'와 같은 구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64)-a

ᄉᆞᄅᆡ 白ㅁ ᄒᆞ ㅭ ᄀᆞ 覺寤ᄉᆞᄅᆡ白ㅁᄒᆞㅭᄀᆞ(舊仁 03:12)

ᄅᆡ ㅁ ᄒᆞ 勿 ᄀᆞ 聞ᄅᆡㅁᄒᆞ勿ᄀᆞ(화소 35;12:11)

ᄉᆞ ㅁ ᄒᆞ ㅭ ᄀᆞ 散ᄉᆞㅁᄒᆞㅭᄀᆞ(舊仁 03:20)

ᄉᆞᆫ　　ㅁᄒᆞᅀᆞᆫᄃᆡ　　會恨ᄉᆞᆫᄃᆡ(화소 35;12:15)

(64)-b

ᄉᆞᆫ　　ㅁᄒᆞᅀᆞᆫᄆᆞᆯᄊᆞᆨ　　與ᄉᆞᆫᄃᆡᄒᆞᅀᆞᆫᄆᆞᆯᄊᆞᆨ(화소 35;11:20)

ᄉᆞᆫ　　ㅁᄒᆞᅀᆞᆫᄆᆞᆯᄉᆞᆯ　　演ᄉᆞᆫᄃᆡᄒᆞᅀᆞᆫᄆᆞᆯᄉᆞᆯ(화엄 14;08:24)[72]

(64)-a는 동명사형어미 '-ㄱ' 앞에 '-ㅁᄒᆞᅀᆞᆫ-'가 통합하고 그 앞에 다시 겸양법 '-白-'과 사동접사 '-ㅣ-'가 통합한 것이다. 이 예는 고려시대의 문법에서 가능했던 선어말어미들의 통합순서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동사어간 + 사동접사 + 겸양법 + ㅁ(서법?) + ᄒᆞ + 주체존대법[73] + 동명사형어미>와 같은 통합 순서를 설정할 수 있다. (64)-a의 끝 두 예에 나타난 'ᄉᆞᆫᄃᆡᄒᆞᆫᄀᆞ'과 'ᄉᆞᆫᄃᆡᄒᆞᅀᆞᆫᄀᆞ'을 비교해 보면 'ㅁᄒᆞ' 뒤에 주체존대법 '-ᅀᆞᆫ-'가 결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ᅀᆞᆫ-'가 결여된 'ᄉᆞᆫᄃᆡᄒᆞᆫᄀᆞ'은 '-ㅁᄒᆞᅀᆞᆫ-'의 구성이 일단 '-ㅁᄒᆞ-'과 '-ᅀᆞᆫ-'로 분석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ㅁᄒᆞᅀᆞᆫ-'의 'ᄒᆞ'는 용언 어간일 가능성이 있다.[74] 'ᄒᆞ'가 용언 어간이라면 '-ㅁᄒᆞᅀᆞᆫ-'는 '-ㅁ+ᄒᆞᅀᆞᆫ-'로 분석되어야 한다.

(64)-b는 연결어미와 문말어미 앞에 통합한 '-ㅁᄒᆞᄆᆞᆯ-'의 예인데 이러한 구성에서 '-ㅁᄒᆞᄆᆞᆯ-' 앞에 다른 선어말어미가 결합한 예는 찾을 수 없다. 즉 (64)-a와 같이 동명사형어미 '-ㄱ' 앞에 '-ㅁᄒᆞᅀᆞᆫ-'가 통합한 구성과는 그 통합 양상이 다르다.

(65)-a

ᄉᆞᆫ白　　ㅁᄐᆞᄅᆞᆨᄀᆞᄉᆞ　　禮ᄉᆞᆫ白ㅁᄐᆞᄅᆞᆨᄀᆞᄉᆞ(舊仁 11:08)[75]

---

72) '久ᄀᆞᆺᄒᆞᄆᆞᆯㅁᄒᆞᄀᆞᄉᆞ'(화소 35;11:19)는 감동을 표현하는 '-ㅁᄒᆞᄀᆞᄉᆞ'(-고녀) 앞에 '-ᄀᆞᆺᄒᆞᄆᆞᆯ-'가 통합한 것이다.

73) 'ㅁᄒᆞᅀᆞᆫ'의 형태분석과 이 글자들의 문법 기능에 대한 명료한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므로 한 덩어리로 묶어서 표시하였다. 'ㅁᄒᆞᅀᆞᆫ' 등의 'ᄒᆞᅀᆞᆫ'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승재(1991)를 참고할 수 있다.

74) 'ᄒᆞ'가 용언 어간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졸고(1995 : 99)를 참고.

75) 이 예가 쓰인 전문은 다음과 같다. 如來ㅅ 三業ᄀᆞ 德ㅣ 無極ᄉᆞᆫᄃᆡᄒᆞᅀᆞᆫᄀᆞ 我

白ㅣㅁ ㄹㄱㅅ 知白ㅣㅁㄹㄱㅅㄴㄱㄲ(舊仁 03:17)

(65)-b

ㄴ白 ㅁㅏㄹㅣ 歎ㄴ白ㅁㅏㄹㅣㄴㅂㅎㄴㅣ(舊仁 11:13)

(65)-a는 동사어간 'ㄴ-'와 어미 '-ㄱㅅ' 사이에 선어말어미로 생각되는 '-白(ㅣ)ㅁ(ㅏ)ㄹ-'라는 구조체가 개재된 것인데 석독구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매우 복잡하고도 특이한 구성이다. '-白(ㅣ)ㅁ(ㅏ)ㄹ-'에서 'ㅣ'와 'ㅏ'는 상호 배타적인 모습을 보여 어느 하나가 출현하면 다른 하나는 나타나지 못한다. '-白(ㅣ)ㅁ(ㅏ)ㄹ-'의 각 구결자가 과연 모두 선어말어미로 쓰인 것인지 의심스러운 감마저 든다. 그러나 통합관계로 보아 이들이 모두 선어말어미를 나타낸 구결자임은 부정하기 어렵다.[76]

(65)-b의 'ㄴ白ㅁㅏㄹㅣ'는 동사 어간과 문말어미 '-ㅣ' 사이에 '-白ㅁㅏㄹ-'가 개재된 구성인데 (65)-a와 기본적 성격이 같다.

(66)-a

ㄴ ㅁㅂㅊ 開演ㄴㅁㅂㅊ(화엄 14;16:03)

如ㅈㄴㅁㅂㅊ(화소 35;09:12)[77]

ㄲㅁㅂㅊ 令ㄲㅁㅂㅊ(화엄 14;20:05)[78]

ㄲㄹ 今ㅅ 月光ㄱ 三寶ㅣ 禮ㄴ白ㅁㅏㄹㄱㅅ(舊仁 11:08). 동사 어간에 주체존대법 '-ㅡ-'가 결합한 '故ㄴㄴㅡㅁㅏㄹㄱㄲㄱㅜㄴㅣ'(舊仁 03:20)과 같은 예도 발견된다.

76) 이러한 복잡한 구조체에 참여하는 구결자의 문법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토들이 쓰인 문맥과 그 의미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여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77) 이 '如ㅈㄴㅁㅂㅊ'는 '다히 ᄒᆞ고ᄂᆞ며'로 읽을 수 있다. 필자는 '如ㅈㄴ-'의 'ㅈ'를 부사화접사 '히'로 읽었다. '莫ㅂㄲㄴㅁㅂㅊ'(화엄 14;15:21) '靡ㅂㄲㄴㅁㅂㅊ'(화엄 14;16:01)는 둘다 '없이 ᄒᆞ고ᄂᆞ며'로 읽히는 것인데 '莫ㅂㄲㄴ-' 구성은 부사화접사 '-이' 뒤에 'ㄴ-'가 통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如ㅈㄴ-' 구성과 그 성격이 같다.

78) '現ㄱㅁㅂㅊ'(화엄 14;15:09)와 같은 예도 있으나 이곳의 'ㄱ'는 '나토-'의 말음일 것이다.

(66)-b

ᄉᆞ ᄅᆞᄒᆞ ㅣ 震動ᄉᆞᄅᆞᄒᆞㅣ(舊仁 02:18)

ᄉᆞ ᄅᆞᄒᆞᄅᆞ 云何ᄒᆞᄉᆞᄅᆞᄒᆞᄅᆞ(舊仁 14:20)

(66)-c

ᄅᆞᄒᆞᄀᆞᄉᆞ 受ᄅᆞᄒᆞᄀᆞᄉᆞ(舊仁 11:12)

ᄇᆡᄅᆞᄒᆞᄀᆞᄒᆡ 功德ᄇᆡᄅᆞᄒᆞᄀᆞᄒᆡ(화엄 14;09:06)[79]

(66)-ab는 '-ᄀᆞ'(연결어미 '-며'), '-ㅣ'(종결어미 '-다'), '-ᄅᆞ'(의문어미 '-오')에 선접한 '-ᄒᆞ-'에 '-ᄅᆞ-'가 다시 先接한 구성이다. 앞의 (61)-b를 다루면서 언급했듯이 어말어미나 문말어미에 선접하는 '-ᄒᆞ-' 앞에는 '-ᄅᆞ-'만 통합할 수 있다. 즉 'ᄉᆞᄅᆞᄒᆞᄀᆞ'나 'ᄉᆞᄅᆞᄒᆞㅣ'는 나타나지만 *'ᄉᆞᄒᆞᄒᆞᄀᆞ'나 *'ᄉᆞᄒᆞᄒᆞㅣ' 따위와 같은 구성은 석독구결에 존재하지 않는다.[80]

(66)-c는 감동법어미 '-ᄀᆞᄉᆞ'와 '-ᄀᆞᄒᆡ' 앞에 '-ᄅᆞ-'와 '-ᄒᆞ-'가 선접한 것이다.

(67)-a

ᄉᆞ 白 ᄅᆞ ᄒᆞ ᄂᆞ ᄀᆞ 散ᄉᆞ白ᄅᆞᄒᆞᄂᆞᄀᆞ(舊仁 11:11)

ᄉᆞ ᄅᆞ ᄒᆞ ᄂᆞ ᄀᆞ 大動ᄉᆞᄅᆞᄒᆞᄂᆞᄀᆞ(舊仁 11:12)

(67)-b

ᄉᆞ ᄅᆞ ᄒᆞ ᄒᆞᆫ ᄀᆞ 化ᄉᆞᄅᆞᄒᆞᄒᆞᆫᄀᆞ(화엄 14;14:18)

ᄉᆞ ᄒᆞ ᄒᆞᆫ ᄀᆞ 住ᄉᆞᄒᆞᄒᆞᆫᄀᆞ(화엄 14; 14;13:24)

(67)-a는 '-ᄅᆞ-'의 유무에 의한 대립형을 보여 주지 않는 토이다. 달리 말해 'ᄉᆞᄅᆞᄒᆞᄂᆞᄀᆞ'와 같은 통합만 나타날 뿐 *'ᄉᆞᄒᆞᄂᆞᄀᆞ'와 같은 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67)-b는 '-ᄅᆞ-'의 유무에 의한 대립형을 가진 토이다. (67)-b에서 '-ᄅᆞ-' + '-ᄒᆞ-' + '-ᄒᆞᆫ-'와 같은 통합 순서가

79) '令ᄇᆡᄅᆞᄒᆞ'(화엄 14;14:24)와 같은 예도 발견된다. 이 예는 종결 구문에 쓰인 것으로 'ᄇᆡᄅᆞᄒᆞᄀᆞᄒᆡ'의 생략형으로 판단된다.

80) 그러나 (57)-b의 예에서 보았듯이 속격으로 기능하는 '-ᄂᆞᆫ'이 결합한 '-ᄒᆞᄂᆞᆫ'은 그 앞에 '-ᄉᆞᄂᆞ-' 또는 '-ᄉᆞ-'의 통합이 가능하다.

확인된다.

(65), (66), (67)에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은 '-ㅁ-'가 '-ㅂ-' 또는 '-ㅌ-'에 선접한 점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석독구결의 '-ㅁ-'는 확인법 '-ㅿ-'의 異形態이거나 '-ㅿ-'의 古形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의 예들에 쓰인 '-ㅁ-'는 확인법 선어말어미로서의 '-ㅿ-'와 이형태 관계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15세기 국어의 확인법 선어말어미 '-아-', '-거-'는 현재시상을 표현하는 '-ᄂᆞ-'의 전후에 통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예들에 나타난 '-ㅁㅂ-'의 '-ㅁ-'는 확인법 선어말어미가 될 수 없는 것이다.[81] 이런 점에서 '-ㅂ-' 또는 '-ㅌ-'에 선접한 '-ㅁ-'는 석독구결에 나타난 매우 특징적 문법형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ㅁ-'의 의미 기능은 위의 예들이 쓰인 문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82]

(68)-a

ソ ニ ロ し 分　　照ソニロし分(舊仁 11:10)

ソ ニ ロ 尸 分　　救濟ソニロ尸分(금광 3;13:13)

ソ ニ ロ 尸 ナ　　不多ソニロ尸ナ(금광 3;13:11)

(68)-b

ソ ニ ロ し　 ヵ セ ㅣ　能刂矢ソニロしヵセㅣ(화엄 14;09:07)

ソ　 ロ し ヲ ヵ セ ㅣ　如支ソ刁 しソロしヲヵセㅣ(화엄 14;09:03)

(68)-c

ソ 太 ロ し ヲ ㅣ　　存活ソセイソ太ロしヲㅣ(화소 35;10:20)

刂　 ロ し ヲ ㅣ　　逼迫ノ刁 刂ロしヲㅣ(화소 35;11:09)

---

81) 15세기의 '-아/어-' 및 '-거-'에 앞설 수 있는 선어말어미는 '-숩-'과 '-시-' 및 '-으리-'뿐이다(허웅 1975 : 971, 973, 966).

82) '-ㅁ-'의 기능에 대해 현재의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감동법 또는 강조법과 관련된 형태일 것이라는 점이다. 감동법의 '-ㅁ刁 ᄉᆞ' 및 '-ㅁセ-'에 쓰인 '-ㅁ-'와 위의 예들에 나타난 '-ㅁ-'는 별개의 형태가 아닐 것이다. 이 점은 감동법을 다루는 다음 절에서 더 논의할 것이다.

(68)-d

ソ　ロ し ㄱ 千 ㄱ ㄴ 慧藏ㄴソロしㄱ千ㄱㄴ(화소 35;20:04)

ソ　ロ し ㄱ 千 ㅠ　捨ソロしㄱ千ㅠ(화소 35;10:11)[83]

(68)은 모두 'ロし' 또는 'ロ尸'을 포함한 토인데, 'ロし'은 항상 한 덩어리로 쓰여 'ロ'의 유무에 의한 대립 형태를 보여 주지 않는다. (68)abc에서 '-ニ-' 또는 '-ム-'만 'ロし'에 선접한다. (68)-c의 'ソムロしㄱ丨'와 같은 토는 華嚴經疏에만 나타난다. 'ソムロしㄱ丨'는 'ロ' 앞에 '-ム-'가 통합한 것인데 이런 토의 'ロ'와 '-ム-'는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문법형태로 보아야 한다. '-ム-'가 확인법 선어말어미이므로 'ロ'는 달리 처리되어야 한다. 'ロし'은 한 덩어리로 기능하는 단일 문법형태로 판단되므로[84] 'ロし'의 'ロ'를 굳이 분석해 내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런 점에서 'ロ'와 'ム' 등 선어말어미로 많이 쓰이는 구결자의 문법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쓰인 분포 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는 (68)-c의 'ソムロしㄱ丨'와 같은 구성을 보고 선어말어미로 기능하는 '-ム-' 뒤에 '-ロ-'가 직접 통합할 수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69)-a

ソ　ロ セ ノ 丨　殘缺ソロセノ丨(화소 35;15:20)

ム ロ セ ノ 丨　至ムロセノ丨(화소 35;12:11)

(69)-b

ㅓ　ロ セ ノ ㄱ リ ㅠ　有ㅓロセノㄱリㅠ(화소 35;12:12)

セ　ロ セ ノ 尸 入 ㅟ　欽セロセノ尸入ㅟ(화소 35;12:11)

---

83) '說ゝロしㄱㄱリㅠ'(화엄 14;08:23), '得ゝロしㄱ尸入ㄱ'(화소 35;10:19)과 같이 '-ロ-' 앞에 'ゝ'가 결합한 예가 있는데 이 때의 'ゝ'가 선어말어미인지는 불분명하다. 석독구결에서 'ロ' 앞에 'ゝ'가 선접한 예는 매우 드물다. (65)-a에서 보인 '知白ゝロろㄱㄴソㄱ乃'가 거의 유일한 예이다. '盡ゝロ'(舊仁 11:03)와 같은 예도 있으나 이 'ゝ'는 어간 말음을 나타낸 것일 가능성이 높다.

84) 'ロ尸'도 이와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인데 (70)-a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69)의 'ㅁㄴ'도 (68)의 'ㅁㄴ'과 같이 한 덩어리로 쓰이는 형태이다. (69)-a의 '至ㅿㅁㄴㅣ'에도 (68)-c의 'ㅅㅿㅁㄴㅋㅣ'와 같은 설명을 적용할 수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 (68)과 (69)에 쓰인 'ㅁㄴ'과 'ㅁㄴ'의 'ㅁ'는 '-ㅿ-'와 같은 범주의 선어말어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ㅁㄴ'은 감동법 '-옷-'의 古形으로 추정된 '-곳-'(이승재 1996b)에 대응하는 형태일 것이다.

(70)-a

ㅅㄴㅁㅎㅍㅇㄱ　有ㄴㅣㅅㄴㅁㅎㅍㅇㄱ(舊仁 14:19)
ㅅ　ㅁ　ㅍㅇㅋ　一ㅐㅣㅅㅁㅍㅇㄱ(舊仁 14:07)
　　ㅁ　ㅍㅇㄱ　願ㅁㅍㅇㄱ(화엄 14;02:19)

(70)-b

ㅅㅁㅌ火ㄴㅂㅍㅅㄱ　供養ㅅㅎㅅㅁㅌ火ㄴㅂㅍㅅㄱ
(화엄 14;14:10)

(70)-a의 'ㅅㄴㅁㅎㅍㅇㄱ'과 'ㅅㅁㅍㅇㄱ'은 'ㅁ'와 'ㅍ' 사이에 '-ㅎ-'가 개재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ㅅㅁㅍㅇㄱ'과 분포상으로 대립적 모습을 보여 주는 'ㅅㅌㅍㅇㄱ'(화엄 14;08:16 外 다수)과 같은 토가 존재하므로 'ㅅㅁㅍㅇㄱ'의 'ㅁㅍ'은 (68)-a의 'ㅅㄴㅁㅍㅇ'에 쓰인 'ㅁㅍ'과 다른 형태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ㅅㄴㅁㅍㅇ'의 'ㅁㅍ'은 'ㅁㄴ'과 같이 한 덩어리로 기능하는 문법형태로 판단된다.[85] 'ㅁㅍ'이 포함된 토로서 '爲ㅅㅁㅍㅜㅋㅍ'(유가 20;04:19), '爲ㅅㅁㅍ'(화소 35;26:19)와 같은 예도 있다.

(70)-b는 'ㅍㅅㄱ' 앞에 'ㅂ'가 결합한 것인데 그 앞에 다시 강세의 첨사 '火ㄴ'이 결합하였으므로 'ㅂ'는 용언 어간일 가능성이 높다.

---

85) 'ㅅㅁㅍㅇㄱ'의 'ㅁㅍ'은 'ㅅㄴㅁㅍㅇ'의 'ㅁㅍ'과 달리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증거는 '圓滿ㅐㅣㅅㄱㅅㄱ'(瑜伽 20;02:20), '獲ㅍㅜㅅㅇㅁㅅㅎㅍㅅㄱ'(화엄 14;02:18)에서 찾을 수 있다. 'ㅅㄱㅅㄱ'의 'ㄱㅅㄱ'은 'ㅅㅁㅍㅇㄱ'의 'ㅍㅇㄱ'과 대립되는 구성이다.

(71)

ㅅ ㅁ ㄹ ㅎ ㅣ　　有七ㅣㅅㅁㄹㅎㅣ(舊仁 14:18)
ㅅ ㅁ ㄹ ㅎ ㄹ　　因緣ㅢㅣㅅㅁㄹㅎㄹ(舊仁 03:23)

(71)은 의문법 종결어미 '-ㅣ'와 '-ㄹ' 앞에 명사화 기능을 하는 'ㄹㅎ'가 통합하고 그 앞에 '-ㅁ-'가 통합한 것이다. 이러한 '-ㅁ-'가 쓰인 문장의미를 분석해 보면 감탄 혹은 강조적 의미가 추출되는데 '-ㅁ-'가 이러한 의미를 산출하는 데 일정하게 작용하는 듯하다.

(72)

ㅁ　　斤　　除ㅁ斤(유가 20;28:21)
ㅎ ㅁ ㅅ 斤　　訖ㅎㅁㅅ斤(화엄 14;07:20)

(72)의 'ㅁ斤'은 형태적으로만 본다면 15세기의 '-거늘'에 연결시켜 볼 수 있으나 'ㅎㅁㅅ斤'은 각각의 구결자가 어떤 기능을 한 것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문맥상으로 '訖ㅎㅁㅅ斤'은 '마쳤거든'으로 풀이되므로 '-ㅁㅅ斤'은 조건적 의미를 표현하는 형태일 것이다.

2.8. '-七(人)-'

석독구결의 감동법은 어말어미와 선어말어미 두 가지로 실현되는데 선어말어미를 중심으로 기술하면서 어말어미도 포함시켜 논한다.

(73)-a

ㅅ　ㄱ ㅢ ㅎ 七 ㅣ　無ㅅㄱㅢㅎ七ㅣㅅ尸のし(舊仁 15:09)
ㅅ　ㄱ ㅢ ㅎ 七 ㄱ　應七ㅅㄱㅢㅎ七ㄱ(화소 35;16:12)
ㅅ 厶 ㄱ ㅢ ㅎ 七 ㅁ　在ㅅ厶ㄱㅢㅎ七ㅁノ尸(유가 20;25:21)

(73)-b

ノ 干 ㅎ 七 ㅣ　斷ノ干ㅎ七ㅣㅅナ尸入し(화소 35;09:19)
ㅢ ㅋ 干 ㅎ 七 ㅁ　生ㅢㅋ干ㅎ七ㅁ(화소 35;16:11)

ᄉᆞᄆᆞᆷᄎᆞᆫᄒᆡ 物滿ᄉᆞᄆᆞᆷᄎᆞᆫᄒᆡᄂᆞᆫᄀᆞ(화소 35;12:17)

(73)-c

ᄂᆞᆷᄎᆞᆫᄒᆡ 飢苦ᄂᆞᆷᄎᆞᆫᄒᆡ(화소 35;09:15)

ᄆᆞᆺᄎᆞᆫᄒᆡ 無七ᄆᆞᆺᄎᆞᆫᄒᆡ(화소 35;12:16)

ᄂᆞᆷᄎᆞᆫᄒᆡᄀᆞ 充樂ᄂᆞᆷᄎᆞᆫᄒᆡᄀᆞ(화소 35;09:14)[86]

ᄂᆞᆺᄎᆞᆫᄒᆡᄀᆞ 衰歇ᄂᆞᆺᄎᆞᆫᄒᆡᄀᆞ(화소 35;11:12)

(73)의 '-ᄎᆞᆫᄒᆡ-'은 모두 기원적으로 보면 계사에 후접한 것이다. '-ᄎᆞᆫᄒᆡ-'은 '-ᄎᆞᆫ-'와 '-ᄒᆡ-'으로 분석할 수 있다. '-ᄎᆞᆫᄒᆡ-'은 감동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데 '-ᄎᆞᆫᄒᆡ-' 뒤에는 어말어미 또는 접속어미가 결합하므로 '-ᄒᆡ-'은 감동법 선어말어미가 된다.

석독구결에서 단 두 예만 보이는 '-ᄅᆞᄒᆡ-'은 '-ᄎᆞᆫᄒᆡ-'의 이형태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형태로 볼 만한 음운론적·형태론적 환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74)-a

ᄂᆞᄅᆞᄒᆡᄂᆞᆫᄀᆞ ᄂᆞᄅᆞᄒᆡᄂᆞᆫᄀᆞ(금광 3;07:18)

ᄆᆡᄎᆞᆫᄒᆡᄂᆞᆫᄀᆞ 未ᄆᆡᄎᆞᆫᄒᆡᄂᆞᆫᄀᆞ(금광 3;06:23)

(74)-b

ᄂᆞᄅᆞᄒᆡᄂᆞᆫᄀᆞ入ᄉᆞᆫ 覆ᄂᆞᄅᆞᄒᆡᄂᆞᆫᄀᆞ入ᄉᆞᆫ(금광 3;06:19)

ᄂᆞᄅᆞᄒᆡᄀᆞᄉᆞᆫ 莊嚴ᄂᆞᄀᆞᄂᆞᄅᆞᄒᆡᄀᆞᄉᆞᆫ(금광 3;06:11)

(74)-b의 두 번째 예 'ᄂᆞᄅᆞᄒᆡᄀᆞᄉᆞᆫ'은 'ᄂᆞᄅᆞᄒᆡᄂᆞᆫᄀᆞ入ᄉᆞᆫ'의 생략 표기이다. 이들의 구성은 위 (73)과 같고 그 의미 기능도 문장의미를 강조하

86) 'ᄂᆞᆷᄎᆞᆫᄒᆡᄀᆞ'와 같이 '-ᄀᆞ'가 '-ᄒᆡ'에 결합한 형태는 'ᄂᆞᆷᄎᆞᆫᄒᆡᄂᆞᆫᄀᆞ'에서 '-ᄂᆞᆫ-'가 생략된 표기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ᄀᆞ' 앞에 종결어미 '-ᄂᆞᆫ'가 통합한 구성은 석독구결 자료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ᄀᆞ'는 '供養ᄂᆞᄅᆞᄇᆞᄀᆞ'(화엄 14;16:05), '濟度ᄂᆞᄀᆞᄅᆞᄉᆞᄀᆞ'(금광 03;13:05), '供養ᄂᆞ白ᄀᆞ'(화엄 14;15:03) 등과 같이 '-ᄀᆞ'가 선어말어미 뒤에 직접 통합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 준다. 이런 점으로 보면 '-ᄀᆞ' 앞에 '-ᄂᆞᆫ-'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ᄀᆞ'가 선어말어미 '-ᄎᆞᆫᄒᆡ-'에 직접 통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는 것이다. (74)-ab를 비교해 보아도 '-ㅋㅌ-'과 '-ㅇㅌ-'이 교체되는 환경을 파악하기 어렵다.[87]

'-ㅇㅌ-'과 함께 석독구결의 감동법을 논의할 때 거론되는 형태로는 '-ㅁㅌ'이 있다.

(75)-a

ソ　ロ ヒ ノ矛分　作ソロヒノ矛分(금광 3;15:05)

ㅓ　ロ ヒ ノ丁川皿　有ㅓロヒノ丁川皿(화소 35;12:12)

(75)-b

ソ　ロ ヒ ノ ㅣ　殘缺ソロヒノㅣ(화소 35;15:20)

ム ロ ヒ ノ ㅣ　至ムロヒノㅣ(화소 35;12:11)

(75)-c

ソ ロ ロ ヒ ノ 亢ヒㅣ　不多ソロロヒノ亢ヒㅣ(금광 3;15:10)

川 ロ ロ ヒ ノ 亢ヒㅣ　令川ロロヒノ亢ヒㅣ(금광 3;15:14)

ホ川 ロ ロ ヒ ノ 矛分　興盛ソ多ホ川ロロヒノ矛分(금광 3;15:09)

川 ロ ロ ヒ ノ 矛分　令川ロロヒノ矛分(금광 3;15:07)

(75)는 '-ㅁㅌ'의 용례인데 '-ㅁㅌ' 뒤에 동사 'ノ-'(ᄒᆞ+오-)가 붙는다. 그러므로 '-ㅁㅌ'은 '-ㅇㅌ-'처럼 선어말어미 위치에 쓰인 것이 아니라 어말어미 자리에 놓였다. '-ㅁㅌ' 뒤에 종결어미 '-ㅣ'가 생략된 것이라고 간주하고 '-ㅁㅌ'을 '-ㅇㅌ-'의 이형태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ㅁㅌ' 뒤에 종결어미 '-ㅣ'가 결합한 구성이 석독구결 전체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ㅁㅌ'은 감동적 의미를 표현하면서 문장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ㅁㅌ'을 표면에 나타난 그대로 어말어미로 본다면 15세기의 강세첨사 '-옷'과 '-ㅁㅌ'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의 강세첨사 '-옷'과 이 '-ㅁㅌ'은 의미 기능적 유사성을 가지나 통합 환경

87) 석독구결에는 처격과 속격의 결합형으로 쓰인 '-ㅋㅌ'이 여러 개 나타난다. 그리고 '天ㅅノ仝ㅋㅌ子仝し(화소 35;15:01)이나 '句ㅅノ仝ㅋㅌ'(화소 35;25:11)과 같은 예의 '-ㅋㅌ'도 처격과 속격의 결합형이다.

이 다른 점이 문제가 된다. 15세기의 '-옷'은 체언에 통합하지만 석독구결의 '-ㅁㄴ'은 용언에 통합하는 점이 큰 차이이다.[88]

석독구결에서 감동법을 표현하는 문말어미에는 '-ㄴㅔ'와 '-ㄱㅔ' 그리고 '-ㄱㅣ'와 '-ㅅㅣ'(혹은 '-ㅊㅣ')가 있다.[89] 다음이 그 예이다.

(76)-a

ᄉᆞᄂᆡᆨ 供養ᄉᆞᄂᆡᆨ(화엄 14;09:17)

ᄉᆞᄂᆡᆨᄉᆞᄂᆞᄎᆡ 證ᄉᆞᄂᆡᆨᄉᆞᄂᆞᄎᆡ(화엄 14;09:04)[90]

(76)-b

ᄉᆞᄅᆡᄒᆞᄂᆡᆨᄉᆞᄇᆞᆫᄉᆞᆷ 飽滿ᄉᆞᄅᆡᄒᆞᄂᆡᆨᄇᆞᆫᄉᆞᆷ(금광 3;13:11)

ᄉᆞᄅᆡᄂᆡᆨ 解脫ᄉᆞᄅᆡᄂᆡᆨ(금광 3;03:18)

(76)-c

哉ㅔ(화엄 14;09:02)

(76)-c는 '-ㅔ'가 단독형으로서 감동법어미 기능을 한 것이다. 따라서 (76)ab의 '-ㄴㅔ'는 '-ㄴ-'과 '-ㅔ'로 분석된다. 이 '-ㄴ-'은 중세국어의 '호놋다' 등에 쓰인 감동법 '-ㅅ-'과 같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73)의 '-ㅎㄴ-'은 '-ㅎ-'와 '-ㄴ-'으로 분석되며 '-ㄴ-'이 감동법의 선어말어미인 것이다.

'-ㄴㅔ'와 함께 '-ㄱㅔ'도 나타난다.

---

88) 금광명경의 'ᄉᆞᄅᆞᄅᆞᄂᆞᄋᆞᄒᆞᄂᆡ' 등에 쓰인 '-ᄅᆞᄅᆞᄂᆡ'은 연결어미 '-ᄅᆞ'와 첨사 '-ᄋᆞᄂᆡ'으로 분석되고 그뒤의 'ᄂᆞᄋᆞᄒᆞᄂᆡ'는 동사 'ᄒᆞ+오+ᄅᆞᄉᆞ다'의 통합구성이다. 拙稿(1995)에서 'ᄅᆞᄅᆞ'를 'ᄆᆞ'로 본 것은 착오였다. 여기서 수정한다.

89) '-ㅅㅣ'와 '-ㅊㅣ'를 재분석하면 '-ㄹ여'를 얻을 수 있다. 이 '-ㄹ여'는 '-ㄱㅣ'(-ㄴ여)와 대립되는 형태이다. 예 : 證ᄉᆞᄂᆡᆨᄉᆞᄂᆞᄎᆡ(화엄 14;09:04). 供ᄉᆞᄂᆞᄎᆡ(화엄 14;15:17).

90) 다음과 같은 예도 여기에 포함된다. '存活ᄉᆞᄂᆡᆨᄉᆞᄃᆞᄅᆞᄉᆞᄀᆡ'(화소 35;10:20), '須ᄒᆞᄂᆡᆫᄃᆞ'(金光 3;15:14), 作ᄉᆞᄂᆡᆨᄉᆞᄀᆞᄐᆞᄀᆡᄅᆞᄒᆞᄅᆞᄋᆞᄇᆞᄒᆞᄀᆞᄀᆞ(舊仁 02:23).

(77)

ㅣ ㅁㅌㄱㅓ 功德ㅣㅁㅌㄱㅓ(화엄 14:09:06)
ㄴㄹㄱㅓ 善ㄴㄹㄱㅓ(舊仁 03:20)

'-ㅌㅓ'와 '-ㄱㅓ'는 그 구성만으로 보면 '-ㅓ' 앞에서 '-ㄱ-'과 '-ㅌ-'이 대립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은 석독구결 전체 자료를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ㄱㅓ'는 동명사형어미 '-ㄱ'에 감동법어미 '-ㅓ'가 결합하여 감동문을 생성한 것이다. 감동법의 선어말어미는 관여하지 않은 구성이다.

그밖에도 감동법어미 앞에 여러 가지의 선어말어미가 통합한 구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78)

白ㅋㅁ ㄹㄱㅅ 知白ㅋㅁㄹㄱㅅㄴㄱ乃(舊仁 03:17)[91]
ㄴ白 ㅁㅏㄹㄱㅅ 禮ㄴ白ㅁㅏㄹㄱㅅ(舊仁 11:08)
ㅁㅌ ㄱㅅ 受ㅁㅌㄱㅅ(舊仁 11:12)
ㄷㅅ勿ㅁ ㄱㅅ 久ㄷㅅ勿ㅁㄱㅅ(화소 35:11:19)

'久ㄷㅅ勿ㅁㄱㅅ'의 '-ㅁㄱㅅ'가 16세기 국어에 나타나는 '-고녀'와 직접적으로 대응된다고 보는 견해는[92] 재고되어야 한다. (78)에서 감동법어미의 기본형태는 '-ㄱㅅ'라고 생각된다. '-ㅁㄱㅅ'가 기본형태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78)의 앞 세 예에서 '-ㅁ-'와 '-ㄱㅅ' 사이에 '-ㄹ-', '-ㅏㄹ-'(또는 '-ㅌ-')가 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ㅁㄱㅅ'가 한 덩어리로 감동법어미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법어미 '-ㄱㅅ'앞에 '-ㅁ-'라는 선어말어미가 붙은 것이 '-ㅁㄱㅅ'이다.[93] 즉 '-ㅁㄱㅅ'는

91) '無ㅌㅣㄴㅋㄱㅅ'(화소 35:10:09)처럼 '-ㄱㅅ' 앞에 '-ㅁ-'가 통합하지 않은 구성도 있다.

92) 이런 견해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 '-고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연의 소치로 간주하고 있다. 15세기의 그 많은 자료에서 '-고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과연 우연의 소치일까?

'-ㅁ-'와 '-ㄱㅣ'로 분리되는 것이며 그 사이에 '-ㅏ-' 등의 다른 선어말어미가 개재할 수 있다.[94] '久ᄉᆞ八勿ㅁㄱㅣ'(화소 35;11:19)는 '-ㅁ-'와 '-ㄱㅣ' 사이에 아무런 선어말어미가 개재하지 않은 구성이다.

(78)에 결합한 '-ㅁ-'의 문법기능을 규명하는 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것은 2.7절에서 다룬 '-ㅁ-' 중에서 '-ㅂ-' 또는 '-ㅏ-'에 선접한 '-ㅁ-'의 기능을 해명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석독구결에는 감탄법어미 '-ㄱ矣ㅣ'와 '-尸矣ㅣ'도 나타난다. '廣大ㅅㄱ矣ㅣ'(화엄 14;15:11), '不ㅅ나尸矣ㅣ'(화엄 14;14:16) 등이 그 예이다. '然ㅣㅅ나ㅏㄱ矣ㅣ'(화엄 14;15:14), '示ㅂ乂ㄱ矣ㅣ'(화엄 14;19:24), '有ナ八勿ㅋㄱ矣ㅣ'(화엄 14;15:10) 등의 예도 감동법어미 '-ㄱ矣ㅣ' 앞에 '-ナ-', '-ㅏ-', '-乂-'와 같은 선어말어미가 통합함을 보여 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ㅋㅌ-'과 '-ㅌㅔ'에 통합된 '-ㅌ-'을 감동법 선어말어미로 설정할 수 있고, 감동법의 어말어미에는 '-ㅔ', '-ㄱㅔ', '-ㄱㅣ', '-ㄱ矣ㅣ', '-尸矣ㅣ'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 맺음말

석독구결에 나타난 개별 선어말어미들의 문법 기능이 명료하게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이들 하나하나의 분포를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필자는 논의의 진행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불편함과 혼란을 경험했다. 현재 석독구결의 선어말어미에 관한 연구 방법은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모든 선어말어미의 윤곽을 개괄적으로 그려 두고 개별 선어말어미의 기능을 살펴 보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각각의 선어말어미를 하나씩 기술하고 분석하는 방법

---

93) '成立ㅅᄉㄱㅣ'(화엄 14;19:12)의 '-ᄉㄱㅣ'에서도 '-ᄉ-'와 '-ㄱㅣ'는 분리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94) '動ㅅㅂ八ㄷㄱㅣ'(舊仁 03:05), '慧藏ㅣㅅㅁㅣㅁ乇ㄱㅣ'(화소 35;20:04)와 같은 예도 '-ㄱㅣ' 앞에 여러 가지의 선어말어미가 통합함을 보여 준다.

이다. 필자는 앞의 방법을 먼저 적용한 후 뒤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거칠게나마 선어말어미와 관련된 구결자 전체의 윤곽을 파악해 보려 한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앞으로 선어말어미로 기능하는 개별 구결자에 대한 정밀한 통사·의미론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고의 기술 내용에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선어말어미들의 통합관계와 계열적 교체에 대한 요약은 각 節의 말미에 제시했으므로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고려 시대 석독구결 자료에 나타난 선어말어미들을 개괄적으로 체계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95]

1. 경어법
   '-ㅅ(시)-' : 주체존대법
   '-白(숩)-' : 겸양법
2. 대상법 또는 인칭법
   '-ㅁ(오)-'(ㅁ/ㄴ)
3. 서법과 시상법[96]
   '-ナ(겨)-' : 동작이나 상태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형태(완료 및 완료의 지속)
   '-ㅌ(ᄂᆞ)-', '-メ(노)-', '-ㅏ(누)-' : 현재
   '-ヲ(리)-' : 미래[97]

---

95) 아래 체계는 졸고(1995, 1996)에서 다루어진 선어말어미들과 이 논문에서 논의된 선어말어미를 묶어서 제시한 것이다.

96) '-ナ(겨)-'와 '-ㅌ(ᄂᆞ)-'는 서법범주에 속하면서 시상을 표현하기도 하는 형태로 간주한다.

97) 석독구결에서 '-ヲ-'는 그 형성적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어서 동명사형어미와 계사의 결합형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선어말어미로 기능할 때도 서법으로서의 추정적 의미와 시상법으로서 미래적 의미가 혼재된 것으로 파악한다.

4. 서법

'-ᄒᆞ(리)-' : 추정법

'-ᄋᆞ(아)-', '-ᄀᆞ(거)-' : 확인법

'-ᄉᆞ(시)-' : 감동법

'-ᄆᆞ(고)-' : 확인법(?) 또는 감동법(?) 관련 형태

문법 기능에 대한 규정은 잠정적인 것이 많음을 밝혀 둔다. 특히 3번과 4번의 것이 그러하다. 보다 확실하고 명료한 체계는 이 형태들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 체계를 15세기의 선어말어미 체계와 비교해 볼 때 다음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ᄂᆞ(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ᄂᆞ-'는 석독구결에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구결자인데 이 구결자의 문법기능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이 구결자가 쓰인 모든 문장에 대한 정밀한 형태·통사론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려후기의 음독구결과 15세기의 훈민정음 자료에서 '-ᄂᆞ-'는 씻은 듯이 사라지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문법사 연구자들의 몫이다.[98]

둘째, '서법과 시상법'에 포함된 '-ᄂᆞᄐᆞ(누)-'가 석독구결에 존재하는 점이다. 이것의 분포와 기능은 '-ᄂᆞ-'와 '-오-'의 결합형이라고 분석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그 기능도 단순하게 처리될 수 없는 면이 있다.

셋째, 확인법 또는 '감동법(?) 관련 형태'라고 모호하게 표현한 '-ᄆᆞ(고)-'의 존재이다. 이 구결자의 기능은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만 화자의 心的 태도를 표현하는 서법범주의 한 형태로 생각된다. 필자가 보기로 이 구결자는 주로 감동 또는 강조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

98) 경북의 북부방언과 전라방언의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겨'('와겻니껴' 등)와, 17세기초의 諺簡 자료(현풍 곽씨언간)에 나타나는 '두겨시니', '와겨신가', '가겨ᄋᆞᆫ신고' 등의 '겨'가 석독구결의 '-ᄂᆞ-'와 어떤 관련성을 가진 것인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넷째, 15세기의 추정법 '-리-'에 대응하는 '-ㅭ(리)-'는 존재하지만 원칙법 '-니-'에 대응하는 형태가 석독구결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에서 언급한 '-ㅁ(고)-'를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섯째, 15세기의 회상법 '-더-'에 대응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의 이두 자료에는 15세기의 '-더-'에 대응하는 '如'가 존재하는데, 이 '如'는 주로 과거성의 시상 표현에 쓰였다(이승재 1992 : 167). 고려의 이두에 나타나는 이 문법형태가 석독구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교 경전의 내용과 관련된 자료상의 제약 때문일 것이다. 불경에는 종교적 理致에 대한 문답이 많고 사건이나 행동의 전개와 관련된 내용이 적은 편인데 이러한 내용적 성격으로 인하여 '-더-'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더-'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는 형태가 한두 예 있지만 석독구결에서 '-더-'를 찾아내기 어렵다.[99]

여섯째, 15세기에 동작상을 나타낸 '-고 잇-' 및 '-아 잇-'과 같은 형식이 석독구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형태의 결여와 'ナ(겨)'의 존재가 어떤 상관성을 가진 듯이 보인다.

그밖에도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중요한 차이는 대체로 짚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의 과제는 위에서 기술된 선어말어미 관련 구결자의 정확한 통사·의미론적 기능을 밝혀서 고려시대 국어의 선어말어미 체계를 세우는 일이다.

---

99) 필자는 졸고(1995 : 97-100)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爲カしンイハ白ラフのㅠ'(舊仁 11:22)과 '開土リ尸[爲]のしンイナフし'(舊仁 11:22)에 쓰인 'イ'가 논의의 대상이었다.

참고 문헌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時相과 敍法』, 탑출판사.

고영근(1997), 『표준중세국어 문법론』(개정판), 집문당.

김영욱(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南權熙(1994), "高麗 口訣 資料 金光明經 卷三의 소개", 구결연구회 월례 강독회, 1994.11.5.

南權熙(1996), "高麗本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의 書誌學的 考察", 『구결연구』, 구결연구회.

南豊鉉(1974), "13世紀 奴婢文書의 吏讀", 『논문집』 8, 단국대.

南豊鉉(1990), "高麗末 朝鮮初期의 口訣硏究-楞嚴經 記入吐의 表記法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69.

南豊鉉(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東方學志』 81집,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南豊鉉(1994), "新譯華嚴經 卷 14의 釋讀口訣", 『국문학논집』 14, 단국대 국문과.

南豊鉉(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動名詞語尾 '-ㄱ/ㄴ'에 대한 考察", 『국어학』 28집, 국어학회.

南豊鉉·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 硏究(其一)", 『東洋學』 8,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박성종(1996), "朝鮮初期 吏讀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백두현(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 支와 矢-그 讀音과 문법 기능", 『어문론총』 27호, 경북어문학회.

백두현(1995),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경어법 선어말어미 '-ㅭ-'와 '-白-'의 분포와 기능에 관한 연구", 『어문론총』 29호, 경북어문학회.

백두현(1996), "고려 시대 釋讀口訣의 선어말어미 '-ㅱ(오)-'의 분포와 문법 기능", 『어문론총』 30호, 경북어문학회.

서종학(1984), "借字 '有'와 '在'", 『울산어문논집』 1, 울산대 국문과.

서종학(1995), 『이두의 역사적 연구』, 영남대 출판부.

이건식(1996),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助詞에 대한 硏究", 단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이승욱(1973), 『국어문법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李丞宰(1991), "鄕歌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ㅁㅅㄷ'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李承宰(1992), 『高麗 時代의 吏讀』, 국어학회, 『국어학 총서』 17, 태학사.

李丞宰(1993), "高麗本 華嚴經의 口訣字에 대하여", 『국어학』 26집, 국어학회.

李丞宰(1995), "動名詞 語尾의 歷史的 變化", 『國語史와 借字 表記』(素谷 南豊鉉先生回甲紀念論叢), 태학사.

李丞宰(1996a), "高麗中期 口訣資料의 主體敬語法 先語末語尾 '-ナ(겨)-'",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李丞宰(1996b), "'ㄱ' 弱化·脫落의 通時的 考察", 『국어학』 28집, 국어학회.

이승희(1996), "중세국어 감동법 연구", 『국어연구』 139호.

이장희(1995), "고려시대 석독구결문의 '-ㄷ'에 대하여", 『문학과언어』 16, 문학과 언어 연구회.

이장희(1995), "華嚴經 口訣字 'ㅁ'의 기능과 독음", 『어문학』 56, 한국어문학회.

鄭在永(1993), "중세국어 의존명사 'ᄃᆞ'의 어미화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최동주(1995a), "국어 선어말어미 배열순서의 역사적 변화", 『언어학』 17호, 한국언어학회.

최동주(1995b),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논문.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